

아가씨들의 소문처럼 율아갔다
종달새의 보금자리는 벌서
보리가을의 달력과 함께 타고 있었다
옅은 남색에 닳은 무꽃은
메밀의 냄새라고 로 다시 피어나고
계절의 바람과 빛에는 더욱더 백열화(白熱化)했다

검은 흙 마음은
무덤게 불의 숨을 토하며
푸른 벧논의 바다는
힘차게 물결을 쳤다
오랜 조상의 논밭에
부지런히 팽이를 휘둘러대는 대지의 자손은
적동(赤銅)색의 전열에
한 여름을 내세상이라고 하는 재미였었다

돌도 씹어 삼키는
커다란 힘의 위장은
절약미의 좁쌀 밥을
아껴서 2순갈 세 순갈
찬물에 말아서 집어넣고 참았다

너무 쪼여서
작은 고기나 개구리가 말라붙은 강바닥에
마른 모래바닥으로부터 물을 파내는 여인들
또 홍수의 아닌 밤에
넘어져 가는 제방을 지키기 위하여
내 맨몸을 말뚝으로 박는 남자들

기면 일어서라
서면 걸어라 하고—
2백10일의 불과 불속
영그는 뿌리와 꽃은 애달프게도
피땀의 흙손을 떨고 있다

종(鍾)

월요일 맑은 아침
성서(城西) 언덕의 그리운 숲에
오늘도 땡, 땡, 땡 하고 울려 퍼지며
야마토주쿠(大和塾)의 종이 우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하요고자이마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줍어하며 말 못하는 머리를 숙이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갑자기 언덕길을 뛰어올라가 숨이 차도
이렇게 건강한 목소리로
이렇게 바른 국어를 할 수 있는데
아사노(淺野)선생님! 선생님은 이제
“안녕”하며 우리들의 손을 잡아 주시지 않고
“착한 아이네”하며 우리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지는 않는다

선생님!
우리들 집의 창은 낮고 어둡고
정말로 마음도 가난한 음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학교 높은 문 앞에서는
눈을 감고 도망치듯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야마토주쿠가 맞이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감사하며 열심히
아이우에오, 1, 2, 3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언니처럼 상냥한
아사노 선생님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들의 영성한 그림을
댁의 벽에 장식하고 밤에도 애지중지하고
우리들을 키우기 위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와 피곤함 때문에 병이 나셨습니다……
아아, 아사노 선생님! 선생님은 이제
즐거운 노래와 줄넘기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행복한 신부의 모습으로
멀리 고향 땅인 일본으로 가셨다 해도
우리들은 향구의 기적(汽笛)을 원망하듯이
지금은 사진만이 묵묵히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윽고 행서(行書)를 읽을 수 있는 날이 와도
선생님은 이미 편지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만들어 주셨던
저 풍차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저 색지(色紙)의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 오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마음의 사랑의 비단실은
언제나 지상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겠지요

우리들이 죄송스럽게 울며 보내고 있으면
야마토주쿠의 석양의 숲에는 바람이 멈추고
오늘도 야간부의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부기] 나는 생전의 아사노(淺野茂子)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 유고(遺稿) 등을 읽고 감동의 불꽃을 느꼈다. 다시 말해서 경성(京城) 야마토주쿠(大和塾) 회장 나가사키(長崎祐三) 선생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 추도시를 지은 것이다.

가을의 속삭임(秋の囁き)

신농(神農)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시월의 바람이 시원하게 가을의 소리를 알리면
하늘 높이 흘러가는 구름의 빛이
지상의 황금 달력에 놀라서 기러기를 불렀다
목장의 말이 메아리를 시켜 꼬리를 흔들면
막내 산새가 당황해하며 등지를 떠났다

우리의 가을을 거두는 즐거운 생업(生業)에
용감한 남자들이 소리 높여 말하면서
손발을 씻는 석양 근처에
양이 차지 않은 예리한 낮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벌레 악대가 시원하게 울고 있었다
들국화가 아련하게 달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집가기 전의 딸들의 눈동자에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하얀색 무도
펼쩍펼쩍 뛰어오르는 물고기의 알몸도 이상했다
초산(初産)을 다투는 젊은 색시들의 허리띠 사이에는
마치 병사의 훈장처럼
그날의 금줄을 축하하며 장식하기 위해
목이 두툼한 붉은 고추가 살짝 숨어 있겠지
깔깔거리는 웃음이 넘쳐나서는
조용조용 소문의 파문(波紋)이 그려져 갔다

또한 길일(吉日)의 밤이라도 되면
천지풍수(天地風水)의 신들과 소의 신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햇곡식으로 만든 떡을 조촐하게 대접한다
오래된 생업의 안택(安宅)을 기원하는 축제 때 마다
우선 황군(皇軍)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원하는 노파들이여
차갑고 맑은 정수(淨水)의 그릇에는 별들이 깃들어 있었다
온화하고 따뜻한 방에서는 아이들이 자고 있었다

가마니를 짜는 긴긴 밤의 새끼줄에
그리운 밤 얘기의 이삭이 이어졌다
고풍스런 군기(軍紀) 책에 비해
우리 아이들의 군문(軍門)에 선 날이 안타까웠다
젊은이들에게 양보하지 않는 노인들 그 바늘의 물결은
저수지의 잉어를 구하는 것이라며 그물을 엮고 있었다

오늘밤도 구장(區長)의 집 대청에서는
따뜻하게 모임이 열리고
이 겨울의 전쟁이 이것저것 계획되어 있었다
그림자 그림처럼 묵묵히 있던 정원수 위에서
“나는 더 맛있게 익기 위해
혹독한 서리를 맞고 싶다”……
달처럼 둥근 감의 열매가
감처럼 노란 달과 속삭이고 있었다

국화의 말(菊の詞)

야스쿠니진자(靖國神社) 임시대제(臨時大祭)⁴⁹⁾의 이 아름다운 날
재계(齋戒)하고 삼가 신을 모시는 아침의 빛은 일색(一色)으로 맑았다
신(神)이 다닌 듯한 아득한 길을 그리워하며 우리르면
넓고 넓은 하늘은 엄숙하게 파랗게 바람을 다스리고
일 억의 목소리를 삼키는 야마토(大和)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었다

지금 또한 새로운 제신(祭神)⁵⁰⁾ 일만 오천 이십 일 주(柱)
아아 이미 이십 오만 삼천 팔백 이십 칠 명의 용사는 신이 떠나셨다
우리들 추한 몸을 깨끗이 하고 발아래에 물을 뿌리고
싱싱한 벼이삭 가을의 폐(幣)⁵¹⁾를 마음으로 바치고 엎드리면
풍요로운 일본의 정원에 국화꽃 향 진하다

우리들 대표인 3만의 유가족들
그리운 사두대면(社頭對面)의 감격을 옷깃에 두드려 넣고
현명하게도 친배(親拜)⁵²⁾를 하는 광영의 한 때－

도시의 거리를 가는 분주한 신발의 흐름도
산속의 오두막집의 나무꾼의 발도 들 가의 짚신발도
또 철의 불꽃 떨어지는 검은 기름의 발도
또 파도치는 바위 무성한 바닷가에서 조개 줍는 맨발도
아아 살아있는 2억 개의 기둥이 되어 일본의 집을 세우지 않는가

직립부동(直立不動)의 일 분간 한결같이 머리를 조아리고
조상님으로 이어지는 황국(皇國)의 명세를 기원하다

이 경건하고 또한 밝은 묵도(默禱)를 하는 동안에
때와 장소를 넘어서 고귀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우리들의 귀를 찢고 눈을 빼앗는 장렬함이어
북방 대륙의 얼음들판에, 남방 적도의 불바다에
또 그들 위의 길 없는 하늘에－

49) 대제(大祭)는 천황이 친히 지내는 황실의 제사.

50) 그 신사(神社)에 모신 신.

51) 신도(神道)에서 신에게 기도할 때, 또는 액풀이 할 때 쓰는, 종이·삼 따위를 오려서 드리운 오리.

52) 임금(천황)이 친히 참배하는 것.

그 옛날의 규칙에서 읊어졌던 언령(言靈)⁵³⁾처럼
바로 대군(大君)의 근처에서 죽으셨다

지금 기원하는 우리들 모두 전우가 되면 처와 자식이 되면
오오 만세(萬世)에 빛날 이날의 신들이여
그 마음가짐을 계승받은 피는 뜨겁게 불탄다
전쟁으로 채찍질 하소서, 죽으시라 하며 이끌어주신다

오오 스스로의 빛을 토하는 신의 비바람에
봄날 벚꽃처럼 떨어지며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느끼는 야마토(大和)의 땅에
노랑과 하얀 꽃이 서로 경쟁하며 피는 국화의 공(功)을 찬양하지 않는가

(야스쿠니진자(靖國神社) 추계 임시대제(秋季臨時大祭) 봉축방송작품(奉祝放送作品))

후기(あとがき)

1939년 1월부터 만 4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동안 격동의 역사의 노래가 이 보잘 것 없는 한권의 시집을 나에게 쓰게 해주었다.

서시(序詩)의 날짜는 1939년 정월 초하루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 시집의 내용과 표제를 계획한 바로 그날로, 미리 서시를 써 두었기 때문이다. 그 후 신작의 순서에 따라 「아시아시집, 제 몇 편」의 순서로 번호를 매기고 발표해 온 것이다.

처음 나의 야심은 100편까지는 거듭 써 나가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렇지만 무사태평한 사람들로부 터 다작이라는 말을 들겠지만, 4년 동안 겨우 60편밖에 쓰지 못했다.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2년 걸리지 않으면 처음 마음먹은 100편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마침 출판사의 호의를 얻어 이 기회에 한 권으로 정리해 보려고 결심한 것이다. 다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시 몇 편을 할애한 데다가, 장편의 풍자가극 「배뱅이의 무도회」는 페이지의 관계상 넣을 수 없었다.

내가 이들 작품을 쓰기 시작했을 때에는, 일률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시는 전쟁시라고 불리고 있었다. 다음으로 애국시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마침내는 오늘날 일컬어지듯이 국민시가 된 것이다. 내가 지나온 이 3개의 명칭적인 단계에 일종의 문학사적인 의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 시집으로 새로운 문학과 사상의 생활을 결의하고 실천했을 때, 나는 당시의 문단으로부터도 오랜 문학 동료들로부터도 완전히 이단시되어 엄청난 고독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동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고독 이상으로 독단을 두려워하는 길이기도 했다. 나의 작품만이 나의 채찍이 되고 빛이 되어 준 것이다. 아무튼 나는 나의 처녀지를 열심히 달려 온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미 우리들의 새로운 동지가 많이 나타났다. 앞으로는 창작상의 즐거운 협력과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3) 말에 담겨져 있다는 이상한 영력(靈力).

이 중에서 과연 몇 편이 독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모른다. 또한 분수에 넘친 말을 한다면 그러한 두려움은 없다. 단지 이러한 국민의 문학 작품이 나와 같은 조선 출신자의 손에 의해 4년 전에 시작된 사실과, 조선에서 최초의 국어 국민시집으로서 출판되었다고 하는 자체에 하나의 작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본서의 출판에서 경성보호관찰소 소장 나가사키(長崎祐三) 선생, 대동출판사 사장 월성종만(月城鍾萬, 李鐘萬) 선생의 애고(愛顧)에 감사드리고, 또한 동사(同社) 지배인 김호선(金好善) 씨의 우정에 힘입은 바가 많았다. 삼가 감사의 말을 올린다.

미키 히로시(三木弘) 화백이 판화와 목화로 장정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1942년 11월 3일 대동아 전쟁 중의 명치절(明治節)에 경성에서 쓰다
가네무라 류사이(金村龍濟)

<출전 : 金村龍濟, 『亞細亞詩集』, 大同出版社, 1942년>

2) 『서사시어동정(敍事詩御東征)』⁵⁴⁾(1943)

삼가 진무텐노(神武天皇)⁵⁵⁾의 성업(聖業)을 그리워하며

목차

서장(序章)	제9장(第9章)
제1장(第1章)	시6편(詩6篇)
제2장(第2章)	· 선전 1주년(宣戰1周年)
제3장(第3章)	· 황령의 앞에(皇靈の大前に)
제4장(第4章)	· 아침(朝)
제5장(第5章)	· 별의 노래(星の歌)

54) 김용제의 『서사시어동정(敍事詩御東征)』은 1943년 5월 23일에 발간된 일본어로 쓴 서사시집이다. 김용제에게 있어서 이 시집은 일본어로 된 시집으로는 『아세아시집』에 이어 두 번째이다. 장편 서사시 이외에 이 시집에는 시 6편이 포함되어 있다. 그의 서사시가 고어체로 쓰였다는 것이 특이하다. 다른 일본어 시가 구어체로 쓰인 것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이 특수한 고어체는 경성제대의 하기와라 아사오(萩原淺男)에게 감수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근대시인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 1885~1942)의 시집 『해도동정(海道東征)』을 그 본보기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도동정』은 '황기 이전 육백 년(皇紀二千六百年)'을 기념해서 1940년 10월에 간행된 책으로, 전부 8장으로 구성된다.

김용제의 이들 서사시는 일본 건국의 시조라는 '진무(神武)천황'이 일본 서남부 가고시마에서 동쪽으로 정벌해 나가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진무는 신무(神武)의 일본어 발음. 『서사시어동정』은 서장에서 시작하여 9장까지 있다. 이 작품은 여러 부족·씨족을 쳐부수는 동안 그 당시의 자연·풍속·인정을 노래하고 있으며, 정복된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오히려 황온에 감격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55) 일본 역사에서 말하는 제1대 천황. 기원 전 660년 즉위했다고 되어 있다.

제6장(第6章)	· 헌목(獻木)
제7장(第7章)	· 전우라고 부르고 싶었다(戰友と呼びたかった)
제8장(第8章)	후기(あとがき)

서장

천황의 기원이 시작된 지
 벌써 2603년이 흘렀다
 아름답게 빛나는 2월
 신하인 저는 새롭게 기원합니다

새롭게 기원하여 아침에
 하얀 구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전쟁의 신이 아득히
 일어서서 바라보는 아시아의 들판에

성스러운 일장기 아래
 피를 불태우며 남으로 북으로
 죽음은 가벼우나 명예는 숭고한 것을
 친구야말로 알 것이다 이 뜨거운 눈물을

적국인 미국과 영국이라는 나라는
 저들이 죄가 많은 탓에
 그 힘을 믿는 것 같구나
 그렇기에 진정 그렇기에

일억 국민 모두 거국적으로
 무쇠를 깨뜨리는 병사들의 횃불
 이기고 돌아와서 최후의 날에
 내 목숨 제물로 삼으리라

이 기도 이 맹세야 말로
 날이 새기 시작한 아시아의 동쪽
 지도를 펼쳐 역사를 편찬하고자
 검이 될 붓을 든 우리는

천황이 나라를 세운 날의
전쟁의 기이한 은총을
환한 등불로 삼아
오직 혼자 바르게 살아서

먹과 같은 겨울 야심한 밤에
추악한 짓 선불리 꾀하였다
내 위에 신들이 내려와
언령(言靈)⁵⁶⁾이 울려 주시기를

제1장

다카치호(高千穂)⁵⁷⁾의 궁(宮) 그 높은 곳에
황금빛 구름결로 아름답게 빛나고
영원히 뿌리내리기를 깊이 기원하는
소나무 거문고의 음색 푸르도다

양지바른 여울 바닷가에
하얀 파도 갈매기 날고
영원한 생명이 펼쳐져
조개피리의 음색 깊도다

우주 속의 태평함(宇內太平)은 음악에
온 나라의 빛은 바람에
그 모습 널리 깔린 나라의 여러 가지
그 모든 것 천황의 위세로세

영혼의 이슬 은덕에
들판의 꽃도 열매도 많아졌노라
미친한 몸은 운택해져
천황의 말씀 삼가 받들었노라
“그 신(神)인 니니기(瓊瓊杵)⁵⁸⁾님

56) 말에 담겨 있다는 이상한 영력(靈力).

57) 다카치호는 미야자키(宮崎)현 북서부, 고카세(五ヶ瀬) 강 상류의 도시. 일본 건국 신화 전설의 땅.

58) 일본신화의 신.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의 손자이다. 그의 명령으로 삼종(三種)의 신기(神技)를 갖

이 양지에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 세대까지 세월이 흘렀지만
아름다운 날이 멀지 않았다”

“서쪽으로 기울어진 나라의 수도인
중양의 땅 이곳은 어울리지 아니하고
시호쓰쓰(塩土)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니
아름다운 야마토(大和) 있다 하네”

“재빨리 그 땅에 가서
새로운 수도를 정할 것이다”
웅대한 뜻을
천황의 말씀 삼가 이렇게 받으셨다

모든 천황의 황태자 기뻐하시어
“마땅히 동쪽으로 옮기자”
그 소리와 눈 빛나니
군신(君臣)의 흘러나오는 피 울렸노라

갑인년(甲寅年) 음력 10월 5일
출범하는 때에 날씨는 맑고
신기(神器)⁵⁹⁾는 당신의 배에
한 군대 또 육지의 길을

오오요도가와(大淀川)⁶⁰⁾에 달려드는 무리는
빨간 피를 햇불로 들고
군대가 휘날리는 뜻을 끊임없이
아득한 물길 사이를 따랐다

고 많은 신을 거느리고 다카마(高天)의 들판에서 다카치호미네(高千穂峰)로 강림(降臨)했다.
59) 신으로부터 전수한 보기(寶器), 특히 일본 황위(皇位)의 상징인 세 가지 신기(神器)인 칼, 구슬, 거울을 말함.
60) 미야자키현 중부를 동류(東流)하는 강.

제2장

이렇게 하여 뱃길 넓고
바다와 하늘 끝으로
낮과 밤을 보내고 맞이하며
북쪽으로 나아가셨다

용신암(龍神岩)이 거무스름해지고 길어지며
등불 사이를 지나
도착하니 미미쓰(美々津) 해변 가에서
수륙(水陸)의 군사는 합쳐졌노라

명성대로 풍경대로
아름다운 미미쓰 백성은
새벽녘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하며
떡을 찢어 전송을 기다렸다

복종하는 충의(忠義)의 포구(浦口)
“네 앞날에 행운 가득 하길”
가상히 여기신 천황의 은혜
포구의 백성 해변에서 울었노라

이 포구의 석별(惜別)을 실고
배가 가는 호소시마(細島) 부근에
바다의 신 무언가 분노하여
군대를 시험하는 것 같다

매서운 바람 차갑게 불어
거친 파도가 배를 삼킬 듯하다
이 때에 아무렇지도 않은 당신
뱃전에 우뚝 서셨다

아낌없이 보물의 창칼(御鎗)
횡 하니 파도에 던지시니
그렇게 거칠던 바다 진정되고
맑은 길을 배는 나아갔다

하지만 배 크지 아니하고
배 속도는 질주하지 못하고
느즈막히 나루터와 포구마다에
들르고 들러서 머무르셨다

녹빛 짙고 모래 깨끗한
사이키만(佐伯灣)의 오오뉴우섬(大入島)에서
“이 신(神)의 대접 솟아나는 우물이며
여기를 파라” 라고 가락에 맞추시니

수상히 여겨 모랫가를 파니
바싹 마르지 않은 진짜 물(眞水)이 나오는 것을
신들은 또 놀랐다
이렇게까지 천황의 위세가 영묘할 줄이야

사다(佐田) 해변 건너편
하야스이문(速吸の門)으로 갈 무렵에는
배 위에 일어나는 선율에 익숙해지고
갈매기 불러 그 광경 아름답도다

언뜻 보면 활이 날아가는 듯한 밀물의 때
그 사이를 훌륭하게 작은 배가 달려온다
씩씩한 우라와(曲浦) 어부
수상히 여겨 “너는 누구냐”

숨어서 몸을 쭈그린 채 “이름은 우즈히코(珍彦) 라고
하는 신하는 나라의 신이니라
하늘의 신의 자식의 행차를
기꺼이 맞이한다”고 했다

“그대가 이곳의 뱃길을 안다면
나를 위해 길잡이가 되어다오”
“일편단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받자오니 시히네쓰히코(椎根津彦) 라고

제3장

길을 아니 배 속도 빠르고
쓰쿠시(築紫)의 땅 우사(菟狹)에 오니
나라의 신 우사쓰히코(菟狹津彦), 또
우사쓰히메(菟狹津媛) 기뻐 우러르다

야쓰칸강(驛館川) 맑은 강가에
물고기 무리를 짓고 새가 노래하는 숲
오시히토쓰아가리노미야(一足騰宮)에
음식은 바쳐졌도다

우사쓰히코 사랑하는 여동생인
우사쓰히메 혼기가 차면
당신 주변에 돕는 사람
아마노타네코노미코토(天種子命) 또한 젊어서

“당신 여동생의 눈이 촉촉해져
내가 신하를 남겨 둔 보람 있네
장가드는 것도 사뭇 좋지 않겠는가” 라고
미소 지으며 당신이 권했노라

혜택 받은 두 생명
아아 경사스럽게 맺어져
아마쓰쿠니(天つ國)⁶¹ 나카쓰쿠니(中つ國)⁶²는
아름답게 서로 피가 섞였다

이윽고 또 온가강(遠賀川)⁶³ 바다에
푸른 물결 바위에 새하얗게
부서지며 흩어지는 이름도 히비키나다(響灘)⁶⁴
언덕의 항구에서 아득히 멀리 바라보면

61) 일본신화에서 하늘에 있으면 신들이 산다는 나라.

62) 중앙에 있는 나라.

63) 후쿠오카(福岡) 현 북부를 북류(北流)하는 강.

64) 후쿠오카 현 북방, 야마구치(山口)현 서쪽에 있는 해역.

현해탄(玄海灘) 거친 파도바람
튀겨서 서 있는 오오시마(大島) 오키노시마(沖島)⁶⁵⁾
키다란 나무들 산림을 이루고
검푸른 모습 치솟았다

그 신에게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⁶⁶⁾
신사(神社)에 제사지내는 여신(女神)을 보내
바다에 알리고 황제의 손자를 도운
인연 있는 무나카타(宗像)⁶⁷⁾ 땅이여

“나 역시 내 고향에
돌아와 사는 마음이 드노라”
새로운 오카다노미야(岡田宮)에서
당분간을 지내셨노라

이제는 벌써 천황의 위세
마음 쓸 것 아무것도 없고
서쪽 나라 모든 섬에
빛나니 더할 나위 없다

이제부터는 거짓말 할 수 없는
아직 보지 못한 동쪽 나라로
신풍의 돛을 달아볼까
이것만을 생각하셨노라

제4장

조용한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⁶⁸⁾의
아름다운 시마네(島根)를 누비고 가
태양과 달빛 속을
동쪽으로 배는 동쪽으로

65) 후쿠오카 현 북단(北端), 오오시마무라(大島村)에 속하는 현해탄의 고도(孤島).

66) 일본 황실의 조상 신.

67) 후쿠오카 현 북부의 도시

68) 서일본(西日本)에 있는 내해(内海). 혼슈(本州), 시코쿠(四國), 규슈(九州)로 둘러싸여 있다. 섬의 수는 약 2천 개. 옛날부터 해상교통, 제염(製鹽) 등으로 번영하였다.

아키노쿠니(安藝國)⁶⁹ 항구 좋구나
물의 길을 북으로는 이즈모(出雲)
바다 길은 서쪽도 동쪽도
행복하라고 배를 연결해준다

어느 날 들판에 당신이 나오셔서
농사짓는 한 노인에게
문기를 “너는 누구냐” 라고 하자
대답하여 이르길 “나라 신(國神)의 자식이요”

“우리 선조는 스사노오노미코토(須佐之男命)⁷⁰
나라 신을 낳으시고
이름 지은 것은 대국주신(大國主神)으로
아키쓰히코(安藝津彦) 지금의 당신이시다

“대국주신(大國主神)은 앞서
몸소 나라를 물려주시고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 앞에
나라를 바치고 행복하시라고”

“황송하옵게도 그 빛을
우리러보아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나이를 살아가는 보람이다”
그 저택이 있는 곳을 향해 노인은 달려갔다

아키쓰히코(安藝都彦)가 이윽고 와서
친절하게 저택에서 맞이하며
“지금부터는 당신에게 우리들
나라와 몸 모두를 바치겠노라”

아키쓰히코(安藝都彦)가 대나무를 잘라 만든
에노미야(埃宮)에 당신이 오시니
은혜는 새롭게 펼쳐져

69) 현재의 히로시마(広島) 현 서반부(西半部).

70) 일본 신화의 신.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의 동생.

나라 백성 자량이 자자했노라

지혜로운 아키쓰히코(安藝津彦)가 말하기를
“동쪽 나라 오랜 세월에 걸쳐
백성과 물자 많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 신의 위세가 있으니”

“은덕을 널리 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이 그러하니
여기에 잠시 진영을 확고히 하고
잘 갖추어 놓으세요”라고

‘그대의 조치도 매우 많이 확대되었다
나는 마땅히 군대를 양성할 것이다’
말씀하신 당신은 이윽고
이동하셨습니다 기비노쿠니(吉備の國)⁷¹로

긴 나날을 다카시마노미야(高島宮)에서
녹나무를 잘라 배를 만들고
젊은 군사를 모아
군량(軍糧)도 비축하셨다

무오(戊午)년 봄 2월
빠른 물살에 출범(舟出)하는 날은
소용돌이 먼저 바다에 뒤덮어와
군사는 불기운을 토했다

갈매기 나는 세토나िका이는
때 아닌 활기에 들끓어 오르고
태양빛도 새로이 비추어
뱃길 물살을 열었도다

하리마나다(播磨灘)⁷² 아카시노우미(明石海)⁷³를
손살같이 군사들이 가면

71) 비젠(備前), 빗추(備中), 미마사카(美作) 지역의 고칭(古稱).

72) 세토나िका이 동부(東部), 아와지 섬(淡路)·쇼도(小豆) 섬 사이의 해역(海域).

73) 아카시는 효고(兵庫) 현 남부. 아와지 섬으로 가는 연결선(連結船)의 기지(基地).

거칠게 소용돌이치는 물결도
사기(士氣)를 부르는 노래 가락이로다

제5장

아아 야마토(大和), 몇 해 동안의 꿈
거슬러 올라가는 그 흐름 위에
청운(靑雲)을 부르면 대답하리라
아아 일본의 산들

강 안쪽 구사카노(草香) 마을
여기다 라고 시라카타노쓰(白肩津)에서
군사는 뱃길을 멈추고
물을 향해 나아간 4월의 길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늘어선
이코마(生駒)⁷⁴의 산맥 높고
그 히가시아마토(東大和) 중에
류우타구치(龍田口)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산길도 매우 험악하고
불리하다며 군사를 돌려보내고
나카쓰노구니(中洲国)에 들어가려고 하자
유명한 나가스네히코 군(長髓彦軍)

천신(天神)의 자녀가 오심은
우리나라를 빼앗는 것이라고
많은 병사가 마중 가서 저지하여
구사카자카(孔舎衛坂) 전쟁이 격하였다

적의 활이 비 내리듯 하는 가운데
천황의 형인 이쓰세노미코토(五瀬命)
팔꿈치 부근에 상처가 깊어 가자
“여기부터는 돌아가느니만 못하다”

74) 나라(奈良)현 북서부. 이코마산(生駒山) 동쪽에 있는 지명.

“해의 신의 자녀인 군사
해를 향하지만 도대체 길이 되지 못하고
태양을 등지면 신의 위력
피를 적시지 아니하고 적은 패하리라”

본의 아니게 구사카(草香) 마을까지
군사를 돌아가게 하시고
적도 또한 쫓으려고 하자
방패를 땅에 세우며 말하기를

“여기부터는 국경이다
그대들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
마음속에서 무서워하는
나가스네히코(長髓彦) 마침내 들어가지 않았다

이때에 천황 형의 상처
깊어가서 이제는 다가오자
슬픔은 칼날에 노하여
칼을 거머쥐고서 우렁차게 외치었다

“분개(憤慨)하고 있는 대장부이니까
천한 몸 상처를 입고
양갓음하지 못한 채 죽을 것인가”
오노미나토(雄水門) 그 이름도 분개하였다

우렁차게 외치자, 비, 땅, 바다에
울려 퍼지고, 울리고 흔들리고
모든 것이 울지 않은 것은 없고
둔치의 파도 눈물을 부수었다

바닷바람의 돛대에 슬퍼하여
아아 마침내 신이 가시니
시신을 당신 스스로
가마야마(籠山)에 묻으시다

“바라건대 형(兄)인 당신이여

당신 설령 신이 사라진다 해도
당신의 적을 보복하는 나와
신이 있으니 편안히 잠드소서”

제6장

군사들의 신의 기습작전(奇襲作戰)
매를 봐서 나구사(名草畠) 마을에
복종하지 않는 나구사토베(名草戸畔)를
토벌하고 남쪽 바닷길로

조용한 와카(和歌)의 포구를 지나니
높아지는 히노미사키(日の岬)의 파도
숲의 산 좁아지는 곳
깊은 초록 바다 그 깊음에

해(日)인 당신을 맞이하는 섬은
아름도 좋아라 가미시마(神島)라고 부르고
식량을 쌓은 섬은
이름도 좋아라 이나즈미섬(稲積島)이라고

하지만 타오르는 기쁨의 눈에
육지가 이제 보인다고 할 때
갑작스럽게 큰 폭풍우가 와서
심하게도 파도는 거칠게 날뛰었다

우리 배들이 나뭇잎과 같아
이제 그 위태로움을 알고
천황의 형인 이나히노미코토(稻飯命)
“아아” “아아” 라고 탄식하시고

“내 선조는 바로 아마쓰카미(天神)
어머니는 바로 와타쓰미노카미(海神)이다
어찌하여 나를 육지에서 괴롭히고
또 나를 바다에서 괴롭힌다 말인가”

칼날을 뽑아 바다에 몸을 던져
사이모치카미(鋤持神) 라고 이름을 떨치니
미케이리누노미코토(三毛入野命)도 함께
저승으로 하고 나오셨다

사누(佐野)가 오르는 ‘아쓰키(あつき)’의 신령(神靈)한 땅
나무를 베는 나치의 폭포(那智の瀑) 떨어진다
눈보라치는 파란 바위 웅덩이에
쉬시면서 진수(眞水)를 길으셨다

가미노무라(神邑) 가까이에서
산과 바다 바위를 파도가 세차게 때리고
박아세운 아마노이와타테(天盤盾)
정상(頂上)에서 나라를 보시고

황태자 다기시미미노미코토(手研耳命)와
당신이 홀로 군사를 거느리시고
니시키도베(丹敷戸畔)를 아라사카노쓰(荒坂津)에서
베어 죽이는 전쟁이 한창이었다

아라카미(荒神)는 위태로운 마음을
토로하며 병마(病魔)를 일으켰다
군사들이 피로운 시기에
원수들이 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시기에

옛날 가미노무라(神邑)에 사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
다카쿠라지(高倉下) 어느 날 밤 꿈에
해의 신 나타나시었다

서 계신 다케미카츠치노카미(武甕雷神)에게
“천황 손자는 이 땅에 있지만,
나카쓰쿠니(中つ国) 아직 시끄러우니
말하기를 지금 정벌하라”

“내가 가지 않더라도
내 평국의 검(平国之劍)인
후쓰노미타마(誦靈)를 하사하면……”
이렇게 고하고 다카쿠라지(高倉下)에는

“후쓰노미타마를 창고에 넣어두자”
두려워 번쩍 눈을 뜨고
다카쿠라지 우리 창고를 보니
아아 이상하게 마루에 꽃혔다

기꺼이 타카쿠라지(高倉下)에 바로
달려가 당신 앞에
심사가 뒤틀리면 후쓰노미타마(誦靈)를
사기(士氣)가 나아 야산(野山)을 강행하였노라

다카쿠라지(高倉下)를 본 꿈에서
우연히 후쓰노미타마를
얻으신 당신도 이윽고
꿈꾸는 대신(大神)이 말씀하셨다

“바위길 험난할 뿐만 아니라
초목이 무성하고 금수가 많으니
내가 남긴 야타가라스(頭八咫鳥)⁷⁵⁾를
병사들이 가는 지침으로 삼아라”

정말로 꿈이 현실인 것처럼
푸른 하늘에 빛을 내는 새는
당신 앞으로 날아와서 내려와 말하길
“영리하게도 인도해주리라”

이렇게 좋은 신의 도움은
성업(聖業)을 펼치는 상서로움이어서
때 마침 야마토(大和)를 향해
천지를 삼켜 정복하셨다

75) 일본신화의 진무(神武) 천화의 동정(東征)에 나오는 새. 천황의 군이 구마노(熊野)에서 야마토(大和)로 들어갈 때 선도(先導)했다고 한다.

제7장

깃발 올리며 우타노아가타(宇田縣)에
당신이 도착하시면
에우카시(兄猶)와 오토우카시(弟猶) 모두
사방의 백성들이 애통함을 토로하니

이 두 사람에게 타일러
전쟁을 하지 말고 복종하도록
안내해주는 야타가라스(頭八咫鳥)를
보내신 책무(責務)에

이 미나노미치노오미(賜名の道臣命)를
에우카시(兄猶)는 활을 쏘으나
매의 날개는 높고
깃발 아래의 병사도 흠어졌도다

두려운 에우카시(兄猶) 임시 거처에
즉시 응하여 행동하여 신궁(新宮)을 만들고
밖으로 나가서 죽여 버리겠다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오토우카시 마음 순수하게
그 뜻을 고해 바치자
에우카시(兄猶)를 부르시어 구메노미코토(久米命)는
“당신 먼저 거기에 들어가라” 라고

검(劍)을 몸에 들이대 위협하고
임시 거처에 쫓아 넣고
자기 죄 자기가 얹어매어
학살하는 뗏에 걸리었다

병사는 시신을 끌어내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본보기로 풀이 빨강계 물들어
피로 물들 들판이라고 사람들은 불렀다

오토우카시(弟猫)의 정성어린 술(牛酒)
칭찬하시며 당신을 대하셨다
술(酒穴)을 병사에게 내리시고
손수 지으신 시가(詩歌)를 읊으시었다

“우타(宇田)의 높은 성에 도요새 새끼줄을 쳐서 경계를 정하였다
내가 기다린 도요새는 방해하지 않고
자리를 세세히 방해하는……”
다함께 낭랑하게 봉창(奉唱)한다

우타(宇田)보다는 요시노(吉野)를 여기저기
나오셔서 많이 알렸고
어떤 때에 다카쿠라산(高倉山)에
구름을 걷고 구니미(國見)에 오니

구니미 언덕에 야소타케루(八十梟帥)가 있어
숫 언덕(墨坂)에서 숫에 불을 붙이고
여자언덕(女坂)에는 여자, 남자언덕(男坂)에는 남자의
적이 많이 퍼져 있었다

보신 당신은 흥분하여
신을 우리러 다시 기원하니
정말로 꿈에 영혼이 나타나시어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긴다고

그 가르침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노인에게는 시히네쓰히코(椎根津彦)를
노파에게는 오토우카시를
도롱이와 샷갓이 천하게 바뀌어

적들은 사자(使者)인지 모르고
보기 흉하다고 길을 피하면
태연스럽게 두 사람은 가고
땅을 얻은 아메노카구산(天香山)

이 땅을 야소히라카(八十平瓮)로 만들어
니부(丹生) 강 상류에 올라
천신(天神) 지신(地神)이여라고
불러오셔서 기원하셨다

쓰타강(窶田川)의 아침 들판에서
또 엄숙한 주술(呪術)로 넘어가면
영험(靈驗)이 홀연히
신주(神酒)를 넣는 그릇(巖瓮)에는 딱딱한 옛(飴)은 되었다

이세(伊勢)의 바다 큰 돌에
비단고동 조개들처럼
한없이 에워싸며
적의 소굴을 “처부수자”

이렇게 기원하고, 노래 부르시어
야소타케루(八十梟帥) 처부수셨지만
마음을 아직 속이는 것은
커다란 공간(室)⁷⁶⁾을 오사카(忍坂)에 만들게 하여

주연(酒宴)이 절정이 되면
미치노오미노미코토(道臣命) 씩씩하게 서서
“머리망치 돌망치(頭槌石槌) 격파해 버리겠다”
노래 불러 잔당(殘黨)들을 없앴다

제8장

진영(陣營)을 또 바위 밑으로 옮겨
복종하지 않는 에시키(兄磯城)의 적(敵)은
오토시키(弟磯城)의 저울을 넣고
시히네쓰히코(椎根津彦) 고래를 일으켰다

이와 같은 모든 적을
토벌하여 이기셨지만
매우 강한 나가스네히코(長髓彦)를
지금이야말로 무찔러 버리겠다고

76) 일본어로 무로(室), 외기(外氣)를 막고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구조물.

“몰래 계획했던 아이들이
용기를 내는 데는 부추 한 그루
그 뿌리 싹 베어 공격해 버린다”
당신도 시를 읊고

“몰래 계획했던 아이들이
담장 밑에 심은 산초
입에 퍼지는 나는 잊지 않고
무찌를 것이다” 반드시

그렇지만 이 나가스네히코는
강하게 하여 더욱 진눈깨비가 내려
비에 젖은 땅은 어둠
병사는 괴로운 시기에

이상야릇한 당신의 활
그 양 끝에 있는 현(弦)을 고정하는 곳에서는 이제야 빛나는
번개 날아가는 것을 봐라
황금빛을 이루는 소리개는 왔노라

그 빛이 눈부시게 아프고
적의 눈을 싸 캄캄하게 하니
견딜 수 없다고 나가스네히코의
병사는 패배해 사라졌다

두려운 나가스네히코(長髓彦)는
“신의 아들 니리하야히노미코토(饒速日命)에게
내 여동생 미카시야히메(三炊屋姫)를
받들어 와서 당신과 공손히 절해주십시오”

“신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지금 또 다시 당신 오심은
우리나라를 빼앗는다고 한다”
명분을 밝히듯 아뢰니

“신의 아들 무수히 있어
내가 당신의 신의 아들이라면

그 효능 증명해보여라”
당신이 이렇게 말하셨다

증거로 아마노하하야(天羽羽矢)와
카치유키(步鞞)를 바치니
정신이 든 당신의 그것이
제시되어 두려움에 떨었다

마음이 쇠약해져 그때는 바야호로
내 임시거처에 돌아왔을 때
더욱이 기호지세(騎虎之勢)⁷⁷⁾
멈추기 어려워 틈을 노렸다

최후까지 후회하지 않는 천성의
그것을 보고 니리하야히노미코토(饒速日命)
도리 없다고 나가스네히코(長髓彦)를
쏘아 죽여 당신에게 복종하였다

아아 이렇게 하여 하늘의 태양 빛은
아오야마(青山)와 바다의 곰
팔굉(八紘)⁷⁸⁾ 널리 비취
신의 성업(聖業) 마침내 이루었다

제9장

벚꽃 야산에 피고
초목(草木) 모두 다시 살아나는 봄
민초(民草)의 기쁨 속에
조칙(詔勅)⁷⁹⁾을 보내셨고

“나 동쪽을 정벌한 지
이로서 6년에 달한다
천황의 위세를 의지하여 적도 죽이지 않아
변방의 땅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77) 호랑이를 타고 가는 기세라는 뜻으로, 풀이하면 일을 시작한 이상 도중에 그만둘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78) 여덟 방위의 멀고 너른 범위라는 뜻으로, 온 세상을 이르는 말.

79) 천황의 뜻을 적은 문서.

남은 재앙 더욱 두렵다고 말하지만
나카쓰노구니(中洲之地) 또 다시 풍진(風塵)⁸⁰ 이루어
정말 잘 황도(皇都)를 널리 열어 장대함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 운명이 둔하고 어리석은 백성의 마음 소박하다
소굴에 살고, 구멍에 사는 풍습 변함없어라
그 어른의 본을 세운
의리 반드시 시대에 따른다
만약 백성에게 이익이 있다면
어째서 성조(聖造)에 방해 하겠는가

또 정말로 산림(山林)을 열어 놓고 궁실(宮室)을 경영하여
삼가 보위에 오르시고 백성을 진정시켜야 한다
위는 아마츄카미(乾靈) 나라를 하사하시고 아름답게 답하시며
아래로는 황제의 손자 타다시키미치(正)를 양성하시어 마음을 널리하시도다
그런데 나중에 온 세상을 겸하여 도시를 열고
팔굉(八紘)을 감싸 우주를 이루는 것
역시 좋지 않겠는가
부(夫)인 우네비야마(畝傍山)의 동남쪽 가시하라(橿原)의 땅을 보면
아마도 나라의 한복판인가
수도를 만들어야 한다”

신유년(辛酉年) 첫날
해는 붉고 땅은 빛나는 아침
일본(葦原の瑞穂の国)에
가을의 신 즉위식은

천황 손자인 하늘의 뜻
신기(神器)를 정전(正殿)에 바친다

나라들의 사람은 수도에
천위(天位)의 축문(祝文)을 올리고

“우네비(畝傍)의 카시하라(橿原)에
바닥의 바위 밑에 궁의 기둥 굽게 세워

80) 세상에 일어나는 어지러운 일이나 시련.

다카야마하라(高天原)에 치기(千木)⁸¹⁾ 높이를 알고
첫 천하에 알려주시는 천황” 이라고

아아 이렇게 하여 한없는

천황의 보위에 오르는
가을 신 즉위하시다
기원 1년 때는 세워졌노라

시 6편

선전 1주년(宣戰1周年)

눈구름을 토하는 절벽의 바위 머리에도
향의 연기를 흔드는 석불(石佛)의 웃는 얼굴에도
모두 동천(凍天)의 한 가지 색으로 차갑게 건너 간다
12월의 엄한 겨울은 왔다

첫눈의 향기롭고 하얀 땅은 끝이 없고
나 새벽의 추위에 서서 동쪽 하늘을 요배(遙拜)⁸²⁾하고
빨간 맨발을 깨끗이 씻고 나아가고자 하는
오오 한 조각 얼음의 마음 또한 영기어 강한 구슬이 되어라

이윽고 싸움의 하루는 또 시작되었고
광풍(狂風)은 와서 눈보라를 휘말며 일으킬 것이다
그래 내 얼굴 내 머리 털을 잘게 찢어서라도
적을 노려보며 방긋이 세 척(尺)⁸³⁾을 머리 위로 번쩍 쳐들 것이다

저 멀리 만리(萬里)나 떨어진 정벌의 들판은 눈을 맞으며
고귀한 한 방울 피도 훌륭하게 불을 지르는
대동아의 성전(聖戰)을 맹세하는 날이여
아아 12월 8일은 또 왔노라

81) 고대의 건축에서 지붕위의 양끝에 X자형으로 교차시킨 길다란 목재. 현재는 신사(神社)의 지붕에만 쓰임.

82)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배례(拜禮)하는 일.

83) 길이의 단위 1척은 30.3센티미터.

황령⁸⁴의 앞에(皇靈の大前に)

1.

하늘의 마음은 신이면서
땅의 은혜는 시간이면서

빛과 그림자는 낮마다 밤마다
히간자쿠라(彼岸櫻)⁸⁵도 사랑스럽게 향기를 낸다
황송한 성상(聖上) 스스로도 흠칫흠칫한다
영혼을 제사 지내는 신의 국체(國體)

메이지(明治) 천황이 손수 지으신 시가(詩歌)를 높이 받들어
“옛 풍속 잊지 말지어다”

2.

천하를 통치하는 천황의 앞에서
아직도 피가 빨간 방패 앞에서
편안했던 후방의 나날을 감사하며 울음 짓고
신이 진노하신 일본의 칼을 갈고

온 나라가 축하하는 날에 차가운 돌 있다면
평화를 어지럽히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도깨비 있다면

사자 온몸의 벌레를 없앨까
원수인 에조(蝦夷)인⁸⁶들의 목을 자를까

3.

지금 두려운 것은 적의 강함이 아니라
또 슬픈 것은 우리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참으로 무서운 것은 승리의 술에 취하는 방법이다
또 천한 것은 돼지의 이름을 찾는 관습이다

아아 그러나 싸우는 것의 아름다움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의 청아함

84) 역대 천황의 신령.

85) 벚나무의 일종(봄의 춘분 무렵에 흩꽃이 핀다).

86) 간토오(關東) 이북에 살던 일본의 선주(先住) 민족으로 지금의 아이누족의 옛 이름.

신들에게 맞출 손바닥을 천자가 보시고
봄꽃들을 나타내 보이게 하실 지어다

(1943년 춘계 황령제(皇靈祭)의 날에)

아침(朝)

달이 해치는 노래 소리에
묵화(墨畵) 속의 꿈의 장막은
어슴푸레 은색으로 밝아 온다

바람은 청명하게 봄의 하늘
별의 발끝은 푸르게 피어나고
이윽고 빨강계 타고르는 해의 구름

춤추며 흘러나오는 라디오에 마음은 용기가 용솨음치고
피도 맑아지는 손(手)의 물을 흔들며
맑게 목숨에게 말을 걸며
날개 가볍게 하나 둘 셋!

들은 이슬을 머금고 씨 뿌리기를 청하고
공장의 울림은 힘을 기다린다

빛의 길로 서둘러 길을 떠나는
아아 싸우는 자의 즐거운 내일

별의 노래(星の歌)

1.

밤 하늘에 반짝반짝
저 별 하나 나이 하나
저 별 둘 나이 둘
저 별이면서도 나이인 숫자
아기의 눈들도 반짝반짝

2.

밤에 많이많이 자장자장 해서
내일 또 크게 울거라

저 별 하나 꿈 하나
저 별 둘 꿈 둘
저별에서 들리는 자장가

3.

마침내 스물 하고도 하나
나라의 명예에 불러 간다면
저 별 하나 이름을 하나
저 별 둘 이름을 둘
어머니의 바람은 끝이 없습니다

헌목(獻木)

뿔아 나오는 어린 싹처럼
아이들의 발은 맨 먼저
봄 햇살처럼 뛰고 있다

별이 드는 뜰의 땅에 그림을 그리고
이것으로 말레이시아다
또 자바⁸⁷⁾다

이번에는 오스트레일리아다
마지막은 미국이다
오랏말놀이⁸⁸⁾ 을 하는 한 때도
소년병의 꿈은 승리를 차지해 간다

입학할 때를 애타게 기다렸던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그리워하는 부름에 응하는 날을
어머니가 아들 위에 마음에 그리며
너의 눈은 뜨거워진다

꽃가마에 태워 온 시집 올 때의 도구
또 내 갓난아이를 목욕시킨
무계가 두 관(貫)인 이 늦쇠 대야

87) 동인도 제도의 한 섬으로 인도네시아의 주된 섬.

88) 양감질로 돌을 차는 놀이.

“어뢰(魚雷)가 된다면 무어라도 아깍시다”

그러자 아이들도 지지 않았다—
높은 가지들이 여름이라도 되면
조상의 오랜 지붕을 덮는
커다란 느티나무 주위가
양손의 넓이로 다섯 개나 되지 않을까
“이 나무를 배로 바칩시다”

이윽고 향하는 느티나무 우듬지에는
아득히 멀리 바다를 부르는 까치가
이긴다(カチ),⁸⁹⁾ 이긴다(カチ), 이긴다(勝ち)하며 축하하고 있었다

전우라고 부르고 싶었다(戰友と呼びたかった)

싸우는 나라의 날들의 흐름에도
평화와 질서를 알리는
일본의 시계(時計)는 엄숙하게 울리고 있다
그 강철을 강하게 하는 힘의 가운데에
그 커다란 마음의 가운데에

갈매기의 가슴을 하얗게 빛내는
상냥한 바람도 있었다
버드나무 실을 파랗게 씻는
따뜻한 비도 있었다
노트를 서로가 조사했던 우리 배움의 뜰에

그대는 할 수 있었고, 그대는 괜찮았다
그리고 젊은 피는 누구보다도 뜨거웠다
각모(角帽)를 둥근 전투모로 바꾸어 갔던
그때의 말(言)처럼 돌아오지는 않았다
아아 야마다(山田)여
그 해 봄 오래되지 않은 날에 그 강당에서

89) 일본어로 이긴다는 뜻의 카치(カチ, 勝ち)를 한국어로 발음이 비슷한 까치(새 이름)로 표기함. 까치는 카타카나로, 이긴다는 뜻의 일본어 카치는 히라가나 카치(勝ち)로 표기하는 시적 재치를 발휘하였음.

그대와 선배들의 명령을 위로했을 때
내 얼굴은 울었는가 울지 않았는가
이 두 주먹은 돌이었다
이 두 눈에는 적뿐이었다

지금 잉어드림(코이노보리)이 펄럭이고 비행기가 질주하는
아름다운 5월의 하늘의 전의(戰意)에
그대와 더불어 조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나
그리운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내 목소리에 내 목소리로 대답해 본다
그렇지만 그대에게 뒤늦게 그대의 길을 가는 나
전우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유감스럽다

후기

바로 지금, 이 작은 책의 교정을 마치고 한 숨 돌리고 있는 참에, 앞의 저서 「아세아 시집」이 뜻밖에도 제1회 조선총독문학상(朝鮮總督文學賞)에 선정되었다는 발표를 접했다. 이 과분한 표창에 감사하면서도, 내 시업(詩業)을 자축하는 듯한 기분으로 이 책을 보내는 것은 대단한 기쁨이다.

이 서사시는 결전 하의 기원절(紀元節)을 봉축하기 위해서 올해 2월에 발표한 작품이다.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10일의 육군기념일의 표어가, 다행히도 진무텐노(神武天皇)의 어동정(御東征) 중에 손수 지으신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의 한 구절이었다.

진무텐노의 행적에 대해서는 「고지키(古事記)」와 「니혼쇼키(日本書紀)」의 2대 원전에 조차도 상이한 바가 적지 않고, 또 그 유적(遺跡)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많은 설이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니혼쇼키」에 의해, 또 주지(周知)의 전설을 넣기로 했다.

이러한 존엄 웅대하고 또한 소박한 정신미(精神美)의 극치인 건국사 이야기를, 감동의 신앙으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일본시인의 행복이다.

고증에 대해서는 森田芳夫 씨로부터 도움을 빌렸다. 또 상재(上梓)하는 데에서 고어의 표현에 대해서는 경성제국대학 조교수 荻原南淺 선생으로부터 감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미 교정 완료의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고쳐 받지 못했던 것이 유감이다. 장정은 三木弘 화백으로부터 이번에도 받을 수 있었다. 선배들에게 은혜 받은 것은 참으로 행복이다. 감사할 만하다.

1943년 3월 21일 춘계황령제(春季皇靈祭) 날
『아세아시집』의 조선총독상 발표를 접하면서
경성에서 저자 쓰다

〈출전 : 金村龍濟, 『敍事詩御東征』, 文省堂, 1943년〉

3) 『보도시첩(報道詩帖)』⁹⁰⁾(1944)

조선에서 징병제의 명예를 짊어질 백만 청소년제군에게 이 글을 보낸다.

장정(裝幀)

제1차 육군보도반원 大智浩

추천의 말

소설이건 희곡이건 또 시가(詩歌)건 책상 위에서 적당히 만들어낸 작품만큼 공허한 것은 없다. 그것은 체험에서 스며 나오는 절실함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체험은 고귀하다.

나는 가네무라 류사이(金村龍濟) 씨의 시집 『보도시첩』을 읽고 적지 않게 감동했다. 정말이지 문법적으로도 완전무결하다고는 할 수 없고, 표현도 극히 소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치게 우리들의 가슴을 치는 까닭은, 무엇보다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작자의 피와 땀의 소산(所産)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기쁨은 참으로 싸움을 이겨낸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과정을 어설뜨기는 하지만, 무척이나 능름하게 묘사한 것이 이 시집이다.

전시하(戰時下)의 시는 이런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감히 추천할 따름이다.

조선군 보도부장 육군소장 나가야(長屋尙作)

90) 김용제의 일본어 시집으로는 세 번째 것이다. 1944년 6월10일 간행되었다. 이 시집의 제1부 『보도시첩』은 모두 32편을 싣고 있는데, 1943년 5월 말에서 6월에 걸쳐서 조선군 보도반원으로서 제1회 보도연습에 참가했을 때의 실제 체험과 감동을 그리고 있다. 작품의 배열은 체험의 시간적 순서에 따르고 있다. 이 시집의 제2부는 '바다의 시 그 외'라는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다와 해군과 관계되는 시를 중심으로 소년들을 향한 전투시가 수록되어 있다.

목차

제1부 보도시첩(第1部 報道詩帖)	제2부 바다의 시 기타(第2部 海の詩 其他)
祈願	바다에 임하여(海に臨みて)
초상(肖像)	바다 빛나다(海光る)
출발(出發)	바다가 열리다(海ひらく)
군화(軍靴)	바다 맑게 개고(海晴れて)
행군(行軍)	거리에서(街の中にて)
감개(感慨)	증오(憎しみ)
예풍(禮風)	태양 농사(日輪農舎)
이른 아침(早朝)	좋은 날 365일(好日三百六十五日)
學科	꽃의 수수께끼(花のなぞ)
위로(慰勞)	아침 밥상(朝のお膳)
사색(思索)	테루테루 보즈(てるてる坊主)
생사(生死)	물총(水鐵砲)
전통(傳統)	동심(をさな心)
창의(創意)	위문 사진에게(慰問寫眞に)
동화(童話)	동생들(弟たち)
토막 이야기(寸話)	부름을 받고 떠나다(召され征く)
토막 잠(寸眠)	위대한 전사(偉大なる戦死)
수난(水難)	싸우는 시인들에게(戦ふ詩人たちに)
나무그늘(木蔭)	- 대동아문학자대회의 벗과 시모노세키에서
조금의 한가로움(少閑)	서로 만나다
표적(射的)	잘 오셨습니다(ようこそ)
보루(堡壘)	투영(鬪泳)
돌격(突撃)	나라에서 추억하다(奈良に憶ふ)
무아(無我)	불문의 길(不文の道)
야영(野營)	후기(あとがき)
잠자는 얼굴(寢顔)	
홀로 읊조리다(獨吟)	
비보(悲報)	
공녀(工女)	
번석(番石)	
전력(戦力)	
대망(待望)	

제1부 보도시첩

초상(肖像)

처음으로 입었던 군복의 모습
스스로 보는 거울(鏡)은 까맣게 잊고
진정한 축하의 말 서로 기뻐하고자
동생을 쇠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불렀다
그렇지만 징병(徵兵)의 권리에 비추어서
서른다섯의 형은 부끄럽다

시발전차(始發電車)의 벽에 있던 거울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가만히 살짝 들여다보았지만
깜짝 놀라 당황하여 얼굴이 긴장되었다
그런데 샴은 줄까 주지 말까
내릴 때 또 망설였다
눈 딱 감고 손을 들어 통과했다

출발(出發)

첫 군장(軍裝)을 하는 나는
아이처럼 그저 마음 기쁘고
또 입가에는 용사(勇士) 같은 긍지마저 피었다
그리고 보도반(報道班)의 완장(腕章)을 꼭 잡아보았다
나는 이미 단순한 한 사람의 시인이 아니었다

첫 여름의 오전 6시
백만의 도시는 아직 조용한 산골짜기에 가로 놓였고
젖빛에 또 연보라색 아침 안개는
영산(靈山)의 어깨 숲에 빛나며 가로 길게 뻗어 있다
참도(參道)의 돌계단을 높이 오르는 군화는 가볍다

신전(神前)의 맑은 물에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보도전사(報道戰士)의 문무(文武)의 책무를 기도한다
거기에 자기 자신의 것은 무엇 하나 없었다
황군의 성장(星章)이 빛나는 전투모와

전선(戰線)의 신애(信愛)를 전해주는 하나의 완장
오늘부터는 이것만이 내가 살아가는 이름이다
죽는 길이다

군화(軍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속인의 껍질을 벗고 군인의 위용을 갖추어라
그 전 날의 ○○명의 보도반원은
제각각 복장의 멧을 달고서
여러 가지 신발의 세속적 먼지를 신은 채
피복창(被服廠) 뒤뜰에서 군복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자와 옷은 모두 받았는가
맞지 않는 것은 서로가 안배(按配)하라
머리에 모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모자에 머리를 맞추는 것이다”

과연
얼마나 합리적이고 호양(互讓)이 밝은 유머인가
반원들은 빔(睛着)을 받은 아이처럼 까불며 떠들었다

그렇지만 신발만은 헌것이 배급되었을 때
아이들이 된 문화인(文化人)들은
아이와는 정반대의 얼굴도 드러냈다
그 터무니없이 큰 악어 입 스타일이나
흐물흐물한 겉모양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이걸로는 행군할 때 발이 견딜 수 없어’ 하며
그럴 듯한 주석(註釋)을 달아주는 푸념하는 태도이다

나는 이 군화의 정신에 대해서
특히 낡았다고 하는 살아온 역사에 대해서
잠시 감개(感慨)의 가슴을 억눌렀다
아아 행군과 돌격을 본령(本領)으로 하는
보병(步兵)의 철의 흐름을 나르는 자

낡았다고 하는 이 사실의 가죽 밑바닥에

고전(苦戰)했던 선배의 발의 혈맥이 아직 따스하다
적지(敵地) 몇 개 산하를 답파(踏破)한 승리의 역사가
이 신발 속에서 무언의 감격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윽고 다음 날 현지로 향하는 열차 속에서는
제2반의 젊은 화가가 열심히
제3반의 시인의 신발을 그리고 있었다
-이 군화의 혼을 훌륭한 그림으로 그려라, 시로 써라

그리고 야산의 격한 행군, 돌격에
한 명의 낙오자도 나오지 않았던 모든 반원은
“군화는 정말 잘 되어 있다”
“사실은 오래된 거니까 더 좋았어”
이 감탄은 정성들인 손길로 빛나고 있었다

행군(行軍)

자동화차(自動貨車)의 고장(故障) 그 답답함에
초밥 든 것이 흔들리는 상자에서 내려서면
여름이 한창인 유월의 자욱한 모래먼지의 소용돌이에
독초의 잎 그 무리들은 더운 향기를 뿜어 올리고
더럽혀진 얼굴을 씻는 진흙 땀은 폭포 같다

엄숙히 맨 총은 숲의 행렬을 가고
낭랑한 군가에 당당한 보무(步武)의 땅 울림
아아 그 생각 지금도 또한 아픔이 남는 것을
그 상처는 벗이여 묻지를 말아라
어제는 의논하며 불손하게 웃었다
오늘의 벗을 나도 물음 당하니

내 뜰의 가난한 꽃을 되돌아보지 않고
승리의 들에 역사의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고 하며

검필(劍筆)을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간다(磨)
아아 군기 아래, 공공연히 말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을까

예풍(禮風)

이 근처 산마을들
풀이 무성한 시골집들
아아 순수한 마을이기에
이렇게도 군인을 공경하는 예를 안다

길을 잘못 들어 해 저문 별관에
말을 물으면 젊은 사람은 자세를 바로 하고
손가락 가리키며 가르쳐주는 국어 선명하다

내년에는 병(兵)으로 오실 청년 훈련생

우리들이 군가를 부르면
마을 아이들 활기차게 화답하고
“이기고 오겠노라고 용감하게
맹세를 하고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길가로 가는 초등학교 아이들 모두
남자는 바른 거수(擧手)의 예를 하고
여자 애는 공손하게 단발머리를 조아렸다
경성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농병(農兵)의 모습

이 연습(演習)의 지대에 골고루 향기가 퍼진다
우리 병사의 황풍(皇風)에 마음 기울고
어린 애는 쑥쑥 자란다
아아 강병(強兵) 반도(半島)의 미래는 미덥다

이른 아침(早朝)

“오전 5시다, 벌떡 일어나라
바쁜 아침이다, 창 열어라
마른 형겔 마찰이다, 구호를 질러라
다음은 청소다, 모포를 들어라
끝나면 집합이다, 밖으로 나와라”
반원은 달리면서 복장을 가지런히 한다

그것은 불과 10분간의 동작이다
조례(朝禮)의 요배(遙拜)⁹¹⁾
아아 조칙봉창(詔勅奉唱)⁹²⁾의 낭랑한 목소리여
황위(皇威)⁹³⁾의 바람처럼
고원(高原)의 초목을 나부끼게 해 간다-

“건너편 산 정상까지
1, 2, 3반의 순서로 전진”
아침 운동이지만 모든 것이 교련이다
두 명의 척후(斥候)가 선행(先行)한다

주홍색 자색의 꽃이 흘러넘치는 싸리를 밟고 헤쳐 나가며
어린 소나무 가지를 휘며 길을 열면서
“올라왔다, 올라왔다” 동심의 밝은 얼굴에
서늘한 아침 이슬이 메달린다

정상에 와서 “야”하고 소리를 지르고
산에서 큰 키를 잔뜩 폈다
이 산의, 이 아침의, 이 하늘을
가슴 깊숙이 길게 빨아들었을 때
“아아 참으로 좋은 산이다……”
배에서 뱉어 나오는 공기의 말이다

어디에서인지 젊디젊은
군가의 올림이 들려오면
한 명의 반원이 척후처럼 손가락을 가리킨다
그것은 청룡국민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
깊은 산속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이다
나는 눈부신 반도의 아침을 거기에서 보았다

교관님(敎官)의 어조는 웅변가의 가경(佳境)을 간다-
아아 명확한 군인정신, 대진리여

91) 먼 곳에서 배례(拜禮)함.

92) 조칙은 천황의 뜻을 적은 문서.

93) 천황의 위세.

그 맑게 흐르는 흥분을
주목의 시선으로 빨아들이는 우리들은
별에 쏘여서도 미동(微動)조차 할 수 없었다
천지와 더불어 좌상(坐像)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거룩한 빛의 기둥을 만진다는 생각으로……

위로(慰勞)

반합(飯盒)⁹⁴⁾의 찬밥을 급히 먹는 일도
화초에 묻혀 들에서 변을 보는 것도
강한 적을 용감하게 해치우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신들의 것이다
아아 내가 사랑하는 병사들이여
해를 태우는 포탄이나 총화(銃火)⁹⁵⁾의 폭풍
그것을 뒤집어쓰는 격전 속에
그것을 뚫고 빠져나간 고투(苦鬪) 후에
마치 숨처럼 피곤하여 지쳐 버렸을까
지구를 거꾸로 꿰어지는 듯한 체중
그렇지만 그 피로란 어떤 것일까

그 피로야말로 자연의 사람이나 지방 사람들의
과로와는 결단코 다른 것이다
그 아름다운 미소 속의 하얀 이(齒)가 말하고 있다—
그것은 건강한 거인의 얼근하게 취한 운치
또 영웅의 신들이 호흡하는 봄의 산들바람

그러니까 젊은 병사들은
심리적인 피로는커녕
생리적인 피로도 모르고
단지 전투를 위해서만 살아있다

심신의 피로를 모른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94) 밥을 지을 수 있게 알루미늄으로 만든 밥그릇. 군대용 등산용으로 씀.

95) 총기에 의한 사격.

그것을 보다 잘 기를 책무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승리와 자신의 기쁨으로
더러워진 군복의 먼지를 털어내는 기분이다

그렇지만 이긴다는 것만이 목적으로
싸우는 것만이 임무인 병사들은
피곤한 것이 피로를 고치는 생활이다
그것을 단련하는 것이 즐거운 운동이다

고귀한 싸움을 위한 피로는 무엇인가
강한 싸움을 위한 피로는 무엇인가
아니 아니, 그것을 짊 수 있는 것일까
싸우는 신들의 호흡처럼
서로 바뀌어가는 빛과 그림자처럼
피로 그대로가 건강한 생활이다, 전투이다
그러니까 피로를 푸는 일조차
그대로 조용한 전투이다

사색(思索)

“군대생활에 사색이 있을까?”
시간에 얻어맞고 좇기는
뼈 마디마디가 피로하고 아픈
처음으로 온 어느 반원(班員)이 중얼거렸다

그것은 심약한 감상(感傷)이지만
물론 좋지 않은 듯한 기분이나 불평은 아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무언가 쓰고 싶은
그런 보도 의욕에서 오는 불안일 것이다

그렇지만 막 들어온 유치원생이
자신은 이미 군대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다리에 사색의 함정이 있다
강가에 서서 수영하고 있는 착각이다
사색이라는 것을 연연하며 사색하는
거기에 탁상 관념(桌上觀念)의 습성이 얼굴을 내미는 것이다

이 생활에 미주(美酒)를 맛보는 생리가 되었을 때
“군대생활에……” 라고 하는 자격이 가능할까
“문화인” 으로서 전쟁을 쓰는 것은 아니다
전사로서의 문사이고 화가인
전사이기 때문에 취사나 수레 끄는 일도 하듯이
이것이 보도반원의 첫 번째 자각이다

군대생활의, 보도전사의 사색이란
싸우는 것의 사랑과 미의식을
아름다운 사행일치(思行一致)의 꽃동산으로 하는
신속과감(神速果敢)한 생명의 운동이다

생사(生死)

강철을 관통하는 불굴의 믿음(信)
굳건한 애국의 뜻
활활 타오르는 적개심(敵愾心)
그리운 전우의 사랑
아아 병사의 그릇에 가득 찬 것은
아름답구나

보리밥 한 톨
단무지 한 조각
수통의 물 한 방울
(돌도 나무도 그럴 것이다)
포탄의 폭약처럼 완전히 소화(消火)하는 자
아아 그 훌륭하게 가득 찬 삶이여
피와 의지의 말(言)이 있는 최강의 탄환이여

젊은 병사의 그릇에
등근 포구(砲口)를 펼친다
밝은 달 속에서
가득 넘쳐나는 삶은
“천황을 위해서 죽는 것”
그 고귀한 책무는 아름답구나

아아 죽음 또한 늘
싸움의 명예와 더불어 존재하지만
내일은 오리라 내 생(生)의 벗인 것을
그것은 가득 찬 생의 영원으로 여는
움직이지 않는 한 순간의 빛나는 계기(契機)일 뿐

전통(傳統)

산은 높으면 좋다
강은 깊으면 좋다
숲은 영원히 푸르면 좋다
그 자연 아름다운 나라에
신성함은 깃들 것이다

소나무는 노란 꽃가루를
바람에 향기를 뿜고 있다

싸리는 보랏빛 꽃 꿀로
별이나 나비를 부르고 있다
몇 만 년이나 그 기쁨을
피우게 해 왔을까

병사는 평화를 위해서
몸을 던지고 있다
농부는 평화에 지켜진 채
가래를 흔들고 있다
오랜 조상의 밭이랑에
오곡의 씨를 뿌리고 있다

그러나 어제의 농사는
오늘의 병사이다
그리고 오늘의 병사는
내일의 농사이다
이 병농불리(兵農不離)의 혈관에
항상 승리한다는 전통이 불타고 있다

창의(創意)

어느 약한 나라에서는
주어진 한 시간의 임무를
두 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병사가 있다

또 강하다고 일컬어지는 어느 나라에서는
한 시간의 일을
정확히 한 시간에 하는 병사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시간이라면 반은 반납하려고
삼 십 분에 창의 궁리하는 병사가 있다

인생을 두 배로 살고
전과(戰果)를 백배로 크게 하는
불가사의한 수학과 역학이 여기에 있다

1에 1을 더해 2가 되고 않고
2에서 1을 빼도 1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1대 1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병 세 사람에
우리 병사를 한 사람 더하면
그 합도 나머지도 항상 한 사람이다

무(無)를 유(有)로 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는
하늘에 통하는 지성의 길이다

그 아름다운 헌신의 창의는
일 발(一發)로 백 발(百發)의 효과를 내고
한 병사의 죽음이 흔히 만 병사의 죽음을 구한다

화초(花草)의 망(網)을 쓰고 야전(野戰)한 병사가
파란 버드나무 가지로 창사(廠舍)를?
-내가 감동한 작은 한 사례이다

동화(童話)

관전(觀戰)에 피로해진 여름 태양이
이미 산그늘로 갈 길을 서두르는 때
겨우 잠깐 쉬었다 가는 것이 허락된
짜리 꽃 피는 산길의 한 때

새 등지에서 뛰어내린 듯한
뜻밖의 소년들의 환영이여
바위 밑동의 샘을 안내하는
아아 눈이 시원한 산의 작은 주인들

“자네들 학교 가는 거야?”
“저 산 너머 2 리를 다니고 있어요.”
“훌륭해. 매일 4리를 행군하는구나.”
“그런데, 언젠가 군인이 될 거거든요.”

“아버지는?” “벌목을 하고 숲을 구워요.”
“어머니는?” “고사리 뜯고 나무 열매를 주워요.”
그리고 총이 매우 갖고 싶은 듯
“이것만 있으면 나도 호랑이 잡아 보일 테야.”
“저렇게 큰 것이 날고 있는
저건 무슨 새지?” 하고 묻자
“저건 소리개야.” 하고 한 사람이 말한다
“아니야 독수리야.”하고 한 사람이 말한다

“군인 아저씨, 저건 소리개지요.”
“군인 아저씨, 분명 독수리예요.”
그 천진난만한 투지가
조만간 싸움을 할 사나운 모습이다.

“하늘의 용사를 사나운 독수리라고 하지 않느냐
나는 소년 항공병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독수리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건 독수리지.”

“그렇다면 뭐……나도”

상대방 소년은 머리를 굽고 있다
아아 젊은 사나운 독수리의 꿈 앞에는
검은 색도 하얘지는 가룩한 동화이다

토막 이야기(寸話)

벌써 몹시 지친 것일까
처음으로 참가한 보도반원은
매달리 듯 소나무 가지를 붙잡고 있다

그리고 수통 속에 남겨진
마지막 한 방울을 쥐어짜는 듯한
최대한의 낮은 목소리로
“실전과 같은 연습이군요.”
젊은 병사에게 중얼거리고 있다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실전 같은……”이란
정말로 무책임한 말이 아닐까
그렇지만 이 당연함의 최대 표현에
자신을 위로하는 최대한의 육성이 있다
병사의 노고를 생각하는 실감이 어려 있다

“실전과 같은……그렇게 느끼는 정도로는
연습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행동의 같은 의미입니다”

“으음” 하고 신음 소리를 낸 보도반원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소나무 가지를 밟고 있다

“백 퍼센트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오십 퍼센트의 연습을 쌓는 것입니다
전쟁보다도 괴로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태연하게 말하는 자신감 있는 말이다
그 병사의 모자에 들꽃이 웃고 있다
이 장소를 사생(寫生)하고 있는 한 화가가
“화관(花冠)의 용사” 라는 제목을 붙이자고
한 시인에게 속삭이고 있다

토막 잠(寸眠)

반합(飯盒)의
찬밥은
혀에 가득 넘쳐나는
감로(甘露)의
과실(果實)이어라

아아 들(野)에
꽃이 널리 깔리고
즐거운 것은
연초(煙草)의
잔치이어라

아아 종다리의
우타마쿠라(歌枕)⁹⁶⁾
풀에 잠든
그 병사는
신(神)의 모습이어라

수난(水難)

창사(廠舍)의 뜰에 새 우물이 두 개 있어
램프를 의지해 아침저녁의
반합(飯盒)을 씻는 당번의 손은
여름 또한 끊어지는 차가움이지만

아아 피보다도 강하게 눈에 스미는
이 고원의 붉은 흙 땅바닥에
어떤 잠룡(潛龍)의 취기(醉氣)인가
언제나 흐려서 끓이지 않으면 마시지 못하는
이 거친 흙빛에 가슴 아픈 것을
푸른 솔바람 부는 것은 산(山)의 행복이어라
아아 그러나 시원한 참물(眞水)을 얻기 어려움에
저 북 중국(北支)에 있는 진우의 풍수(風水)를 생각했노라

96) 와카(和歌)의 소재가 된 각처의 명승지.

한낮 행군하는 하얀 비탈길에
커다란 물 향아리 하나 끌고 올라가는 달구지여
삼리(三里)의 진흙 땀에 혈떡이는 것을 보고
이 마을 여자의 마음을 아파했노라

나무그늘(木蔭)

먼 산줄기에
파랗게 에워싸여
인적은 끊기고 노루 노니는
고원(高原)의 대동(大同)의 땅

갈색의 판자벽
검은 색 칠한 함석지붕
타는 여름의 불꽃을 들고
나란히 서 있는 창사(廠舍)의 건물들

교대하는 연습(演習)의 용사들
우리들 외에는 모이지 않고
한 마리 쥐도 또한 울지 않는
무척이나 고즈넉하게 비어 있다

창사의 구석 마굿간 앞에
아무 말 없이 군마(軍馬)의 눈을 위로하는 버드나무여
언제 왜 여기에 생겨난 것일까
아니면 누구의 마음이 심어진 것일까

아아 지금의 우리들처럼
이 시원한 나무 그늘에 벗의 등의
땀을 서로 닦았던 한 마디 천황의 말씀
그 사람들을 말하지 않을까

조금의 한가로움(少閑)

파란 가지를 늘어뜨린 길가의 버드나무여
이 뜨거운 하늘아래의 행거(行車)에서
열 관(貫)이나 되는 장비는 얼마나 파고 들었을까

(그것은 모를 지라도 사실은 좋은 것이다)
차가운 바람만 더 낱아줘
질은 나무그늘만 더 쌓아 줘
뜨거운 가슴을 발가벗은 이 한가로움에!
잎을 축 늘어뜨린 채 시들은 키가 큰 쭉들이여
하늘의 해를 셔츠로 가려 주리라
(땀 냄새 나는 것은 참아 줄 것이다)
작은 텐트처럼 팽팽하게 쳐 줘
다림질 한 것처럼 말려 줘
십 분간도 되지 않는 이 한가로움에!

잘 있어라 이 길가의 너희들
그리운 나무여 풀이여
이 한 때의 추억에
내 휘파람을 이별의 노래라고 하자

보루(堡壘)

삼백 미터의 전선(戰線)에서
내 머리에는 '연습'은 사라졌다
나의 돌격을 지지하며 괴롭히는
적진 고지의 토치카뿐이다

진지하게 정말로 그 녀석을 겨누었다
마구 달려가 엎드린 순간에
하마터면 양 이빨이 부러질 뻔
입술의 피를 섞어서 진흙도 먹었다

숨이 막히는 가슴을 찢어지라며 불렀던
그 함성은 꿈 속이었다
역지로 보니까 얼마나 웃기게 하는가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는 토막(土幕)의 가련함이여

적의 허수아비에게 감쪽같이 속았다
이겼다고 대답하지 않는 분함이다
적이여 왜 약한 것인가 토치카
피곤하지 않다 좀이 쑤신다

“저 큼지막한 노루가 잡혔다
연습중이 아니었다면” 그 소리에
“뭐야” 나는 쓴웃음을 지을 뿐
여기는 조선, 모형(模型)의 토치카가 아닌가

돌격(突擊)

진격 직전의 베틀을 숨기고
하무를 물면⁹⁷⁾ 바람은 없고
내가 엎드리는 지열(地熱)은 풀숲에서 풍겨나는 훗훗한 열기

두개골을 숨기는 바위 모서리에 파란 하늘은 서고
여름 구름⁹⁸⁾의 하얀 불꽃이 전의(戰意)를 내뿜는데다가
클로즈 업 된 개미가 끌고 가는 꽃잎의 색깔
“각 소대(小隊) 모두 조용히 전진 개시
지형을 이용해 적의 의표(意表)로 나가라!”
중대장의 명령은 물처럼 땅을 파서 만든 수로(水路)로 흘러 간다

왼쪽 날개의 소대는 초진(初陣)의 흥분에 불타고
화초의 의장(擬裝)은 들을 휘감으며 간다
산기슭에 흩어지는 내 분대는 열 두 명의 병사

지령이 같은 수로를 누비며 나가서는
또 독의 밭, 도랑의 습지를 기어 나간다
버드나무 그늘에서는 까마귀 새끼를 놀라게 하고……

이 백 미터의 적에게 쫓길 무렵에는
쏟아지는 기관총에 대항해서 벌거숭이 경사지를
“가네무라(金村)라고 이름을 대며 나는 탈토(脫兎)와 같이⁹⁹⁾

이 십 미터 정도 앞으로 고꾸라질 듯 힘차게 달려가서
몸을 던져 엎드린 순간, 머리 위에서는
영정귀 꽃이 피를 뿜으며 확 떨어진다

97) 침묵을 지키고 숨을 죽이면이라는 뜻. 하무(枚)는 소리를 내지 못하게 입에 물리는 막대.

98) 여름에 흔히 볼 수 있는 적란운(積亂雲) 따위.

99) 대단히 빠른 모양의 비유.

눈이 아찔하다, 이를 딱 깨문다
그리고 바짝 다가선 촌지(寸地)를 굽어 모아서
붉은 흙을 파는 본능이 총을 쏜다

아아 돌격만이 죽음의 호흡을 구원하는 것이다—
혈관을 짜내는 합성의 폭풍우는 공격한다
내가 꺼낸 칼집의 칼날 앞에 만세(萬歲)의 벽은 열릴 것이다

무아(無我)

타는 쓸쓸한 염천(炎天) 아래
땀 닦는 얼굴은 새까맣게 타고
따끔따끔 피부가 짓물러도
태양의 존재조차 잊어버린 날이여

밭에는 아직 돌아가지 않고 일하고 있는
저 침묵의 사람들은 우리들과 더불어
일출을 향하여 배례(拜禮)하는 그대들의 눈으로
허리를 들어 별을 바라볼 것이다

보릿가을(麥秋)¹⁰⁰을 제사 지내는 종달새의 노래는 온 종일
고원의 달에 우는 땀꾸기는 밤새도록
그렇지만 그들 소리를 정말로 들은 것은
경성에서 도착한 첫날뿐이다

우리들에게서 잊혀진 태양이
얼마나 언짢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허점이 없는 보초에게도
보고 같은 건 생기지 않을 일이다

꿈같은 건 달아나 있는 잠자는 얼굴 위에
별들은 창에서 무엇을 엿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도깨비 같은 불침번에게도
보고(報告) 같은 건 불가능한 사항이다

100) 음력 4월에서 5월을 가리킴. 보리때.

야영(野營)

빨간 저녁 구름이 사라진 여름 날은
파란 고원에 황혼이 깃들어 온다
잠자리의 지면이 이슬에 젖지 않을 동안에
자, 못을 치고 지붕을 펴라

여섯 평만큼은 즐거운 꿈으로 가득 차 넘쳐 나고
한 켄레의 군화가 전우의 침구가 될 것이다
가장 밝은 별이 축사(祝辭)를 보내는 밤
풍선 건축의 시원한 집은 다 지어졌다

몽땅 뽑아서 전면에 깐
숙의 목덜미는 향기가 드높다
램프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아래
흙 구멍의 재떨이를 에워싸는 담배는 맛있고

이윽고 처량한 슬픈 새 소리도 흘러버리고
정신없이 잠든 전우의 얼굴은 아이 같고
앞선 보초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나는
아무 말 없이 총을 들고 막사를 나간다

1호와 2호 막사 가운데에 서서
물끄러미 귀를 세우고 어둠을 바라본다
열 간(十間) 앞의 까만 나무 숲은 먼 성을 닮았고
하늘의 별이 나와 가깝고

고립한 채 말없이 보초의 위에 그 별은 빛을 던지고
남모르는 사수(死守)의 기쁨을 손에 놓는다
그래, 야습(夜襲)의 적, 산적, 갑작스런 불
그렇지 않으면 동화 속의 도깨비들도 올 테면 와라

나 혼자 모든 부대를 지키는 깊은 밤에
막사 위를 스쳐가는 그리운 반딧불이여
적진의 물은 쓰다, 거기 가지 말고
내게 와서 말하라, 소년 시절의 추억을

잠자는 얼굴(寢顔)

뼈꾸기가 뼈국, 뼈국
조용함을 더 처량하게 한다
- 그 소리로 오늘밤을 울며 지새거라

반딧불이 스윽, 번쩍
작은 유성(流星)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다
- 그 바늘로 오늘밤 어둠을 꿰매며 완성해 나가라

불침번인 나는 소리가 나지 않게
가만히 창을 열고 공기를 청소한다
- 별들이여, 용사의 자는 얼굴은 훌륭하리라

산 건너 편 적의 야영장에도
뼈꾸기는 저렇게 울고 있을 것이다
- 잠자는 코고는 소리도 적을 이길 것이다

홀로 읊조리다(獨吟)

함성의 폭풍우 여기서 잠잠해지고
반딧불만큼 불길 약해진
하나의 램프는 산 속

나 홀로 잠들지 못하는
밤의 도깨비
왕성한 싸움터의 꿈을 지키는가

창사(廠舍)의 창에 와서
파랗게 걸리는 별의 발(簾)이여
아아 저 은하수
단숨에 들이키고
내 손 위에 뱉어내고는 헤아리는가

전우의
코고는 소리 그 바람에 갑자기 떨어져
강철의 하늘빛에

빛났다가 사라지는 유성이여
내 시첩(試帖)을 빼앗아
신묘(神妙)한 악보를 그리는가

비보(悲報)

전투를 단련하는 연습의 땅에
아아 성스러운 장군 야마모토 원수(山本元帥)¹⁰¹를 그리면서
그 위대한 상장(喪章)¹⁰²의 국일(國日)을
무장(武裝)의 예(禮)로 기다리는 이를 전

우리들 산속 깊은 곳에서 오로지 세상을 잊고서
신문을 보지 않고 전황(戰況)을 듣지 않기를 몇 날이다
아아 무엇을 생각했는지 오늘이 되어서야 알려면서
아투 섬의 비보(悲報)¹⁰³에 말소리를 삼키는¹⁰⁴ 지휘관이여

열탕(熱湯)의 땀에 피로해진 행군의 몸에
얼음 바늘을 한 순간에 마구 붙어대는 것
저 아황산의 차가운 농무(濃霧)의 모습
흰 눈 내린 숨은 바윗들로 저버린 이 천의 영웅의 피여

아아 슬픈 그대로의 모습으로 눈물 떨어지면
나를 하늘에 꼭하게 하라, 벗에게 땅을 두드리게 하라
눈(目)은 도깨비불을 뿜어 적(敵)의 하늘을 불태우고
빠는 보복의 칼날을 갈며 이갈이를 한다

공녀(工女)

확 번져오는 밝은 직장의 꽃동산
움직이는 숨씨에 시원한 바람이 울린다
“저는 가난한 집의 딸입니다”
그런 부끄러워하는 안색은 없다

101) 야마모토 이소오(山本五十六, 1884~1943)를 말함. 해군 군인이며 원수로 태평양 전쟁 때에 연합함대 사령장관(司令長官)으로 진주만(真珠灣) 공격을 지휘한 인물이다. 솔로몬 제도(諸島) 상공(上空)에서 전사함. 김용제는 이 시에서 그의 죽음을 찬미하고 있다.

102) 사람의 죽음을 조상하기 위하여 다는 검은 천으로 된 표.

103) Attu. 북태평양 알류산 열도의 한 섬. 일본군 최초의 집단자살, 즉 ‘옥쇄’가 있었다.

104)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

“제 일하는 모습을 보세요”
땀이 뻘 코는 그다지 뿜내지 않는다
몸패¹⁰⁵⁾ 형(型)의 작업복도 그 자태 상냥하고
눈만이 생기 넘치게 침을 좇는다

처녀의 일념(一念)을 담아 누비는 홍백(紅白)의 실의 길이어
가득 쌓인 가죽과 헝겊과 쇠 장식의 재료가
어느 새 훌륭한 군수품(軍需品)이 된다
싸워서 용사의 몸에 걸쳐라, 나라의 방패

처녀들의 손이 되는 미세한 부분이
비행기의 어딘가에 사용되었을 때
하나의 바느질 눈이 무르게 풀린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는 죄가 됩니다”

남자의 일손이 부족할 때니까
훌륭하게 일해 달라고 격려하면
“아닙니다, 저희들의 좋은 점을
나라의 전쟁에 바칠 겁니다”

처녀들의 늠름함, 애무(愛撫) 속에
바늘 하나가, 실 한 가닥이 피를 받아서
싸우는 무기의 신경은 만들어져 간다
아아 아름다운 군국(軍國)의 꽃동산이여

(□□조병창(造兵廠)을 견학하고)

번석(番石)

지축(地軸)을 짊어지고 선 그 발 아래에—
분화(噴火)의 아침, 솟아나는 샘의 저녁도 있었을까
몇 천개 되는 신부의 가마가 지나가고
몇 백기 되는 묘가 무너져 흘렀을까
병영의 뒷산에 그저 나 홀로 선다
까만 맨 살의 자연석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105) 농촌 산촌에서 밭일이나 겨울 나들이 때 입는 일종의 바지로 주로 여성용.

이 야영의 뜰에 계속되는 마을에서 도시로
몇 만의 청년이 급히 달려가는 그 속에
오오 조선 태생의 지원병이 있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란 이 바위의 허리뼈는
분명 석 자(尺)는 뛰어 올랐음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방첩(防諜)의 도깨비처럼 침묵하고 있는 번석(番石)이다

이 트랙에서 무수한 출정을 전승하고
이윽고 돌아오는 용사를 또 맞이하며
고향의 직장으로 또 전송하는
그 기쁨도 묵묵히 축하하는 번석이다
아아 또 무언(無言)의 백목(白木)¹⁰⁶를 맞이해도
그 슬픔을 묵묵히 참아내는 번석이다

저 아시아 대륙으로의 무지개 다리인
그 새로운 국토에 차분하게 자세를 취하고서
우리 아이들을 받치며 기도하는 어머니처럼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서, 아직 쓰이지 않은 기념비여
아아 최후의 승리 그 후에도
발가벗은 채로 말없이 서 있어라!

전력(戰力)

드디어 귀환하는 열차가 도착하고
승차를 마친 열차가 떠났다
무거운 장비를 떼어내어 몸이 가벼워
깜박 턱이 빠질 정도로 크게 웃어버리고
막혔던 잡담이 탁류(濁流)의 소용돌이다

거기에 지휘관의 기지(機智)가 작용하여
기습적인 한 발이 날아왔다
“전력(戰力)의 개념과 그 요소가 어떠한지
각자 답안을 제출 할 것”
정해진 시간은 정확히 10분간

106) 껍질을 벗기거나 깎기만 하고 칠하지 않은 나무.

갑작스런 난제에 당황해하며
차내는 한 때 잠잠해졌다
이상하리만큼 진지한 얼굴을 하며
'작전요무령(作戰要務令)을 주뺏주뺏 펴서는
만점의 성적을 거두려는 반원(班員)도 있다
소곤소곤 대면서 협력하는 전우도 있다
천진난만한 10분간의 분위기다

그래서 “전력이란……”
나도 그렇게 쓰기 시작해 봤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첫머리가 이럴 것이다
그 천편일률적인 것을 상상해보면
묘한 쓴웃음이 멈추어 지지 않았다

삼단논법의 문법이나 설명이
얼마나 무력하고 공식적인가
구체적이지 못한 문자의 나열이
얼마나 공허하고 추상적인가
서두르기 때문에 흐트러지고 커지는 글자로
상식적인 것을 나는 휘갈겨 썼다

내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할 용기는 없었지만
이것은 멋진 시의 제목이기 때문에
1분간에 할 수 있는 답안이 있기는 있었다
“대원수 폐하의 대어능위(大御稜威)¹⁰⁷⁾
일본국에 있었고, 또한 살아있다
모든 아름다움도 남김없이
그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성전(聖戰)에 바치는 마음의 아름다움”

대망(待望)

겨우 이레 동안의 군대생활에
연습의 들판을 달려온 얼굴은 타고

107) 천황의 커다란 위세(威勢)라는 뜻.

배낭을 멘 총가(銃架)¹⁰⁸⁾의 어깨가
연분홍빛으로 부어올라 잠시 아팠다

그 어깨가 지금은 강하고 단단해진 듯하다
가슴도 또한 전투정신으로 팽팽해진 듯하다
거리의 행군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것은
저 적토(赤土)의 들판에 내 던져진 저녁나절의 노랫소리다

외출하는 병사에게 전우의 그리움을 느끼며
산속의 아이들이 수통의 물을 마셔 주었다
그때의 기쁨이 순진한 교훈이 되어
담뱃불을 나누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겨우 이레 동안의 훈련이었지만
피를 말리는 듯한 귀중한 땀의 흐름에
창백(蒼白)하다고 하는 인텔리의 부끄러움은 씻겨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自信)이 몸에 배는 것 같다

아아 어느 날엔가 종군(從軍)의 비행기가 도착하면
친구에 앞서서 전지로 달려가자
이런저런 생각하며 기도하는 싸우는 구름에
저 출발의 아침 내 '기원(祈願)'의 시가 뜬다

제2부 바다의 시 기타

바다 빛나다(海光る)

눈을 뜨는 초원의 여름 바람에도
눈을 감는 꿈 하늘의 은빛 놀에도
그저 파랗게, 또한 조용히 물결 하얗게
바다가 빛나는 희망의 바닷가에 노래를 부르는 자

작은 양손을 갈매기처럼 가볍게 흔들며
또한 움직이지 않는 수상기(水上機)의 자기 동체(胴體)를 엿갈리게 하고

108) 총을 걸쳐 두는 받침.

그리고 또 손바닥을 직각으로 가슴에 대고
약간은 넘실넘실 거리며 출범(出帆)의 저편을 그린다(描)

나는 바다의 아이, 나는 가미카제(神風)의 아이
미국과 영국 그 원수의 파도가 사납게 날뛰는 지금의 세상에
아아 빛나는 야마모토 제독(山本提督)의 그 뒤를
기(旗)가 명령하는 빛은 저 물 속

바다 맑게 개고(海晴れて)

태고 적부터의 신들의 정령(精靈)¹⁰⁹⁾이
그대로 맑게 잠재해 있다
영원을 향한 청춘의 향기가
언제나 오존의 거품을 뿜어내고 있다
그 바다의 빛은 젊은이의 꿈과 더불어 있다

무색투명한 한 방울의 물이
젊은이의 혈맹(血盟)처럼 응고되어 온다면
얼마나 짙은 쪽빛의 반짝임이 될까
풀잎 끝의 한 방울 이슬이
젊은이의 합창처럼 흘러온다면
얼마나 파란 해도(海圖)의 바닥을 즐길까

바다의 아름다움과 친근함을
깊은 산속에서 자란 사람은 모른다고 말하지 말지어다
이 넓은 하늘의 빛과 펼쳐짐은 바다의 거울이다
오월의 미풍은 거기에서 들려오는 노래의 울림이다
뇌조(雷鳥)¹¹⁰⁾의 숨씨는 구축함의 흥내이다

그 희망이 지금 이천 오백만의 가슴에 맑게 개었다
이미 젊신이나 기차 걱정은 필요 없다
이 지원(志願)의 바다에 마음의 도장을 찍으면 된다
아아 싸움과 건설의 지금의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고, 또한 젊은 행복이여

109) 삼라만상(森羅萬象)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되는 신령.

110) 일본에서는 천연 특별 기념물이다.

물에 살다 물에 담가질 목숨과 시체
일곱 개의 바다를 환희의 촉베로 퍼 올려라

거리에서(街の中にて)

이 점포가 옛처럼 녹는 것은
뜨거운 태양 탓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전열(戰列)의 불길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자네도 나도 같은 대오(隊伍)의 동료입니다
얼굴이나 이름을 모른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보조를 맞추시다

자네의 긴 머리에는 아직 적이 기생(寄生)하고 있습니다
자네의 복장에는 아직 미국과 영국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저 여자의 몸뚱이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과일이나 비누나 솜 등
몰래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서 모으면 적의 올가미에 걸립니다
값 싼 배급을 말없이 기다립시다

저 창에 붙인 종이가 자네에게 쓸쓸하게 묻습니다
“자네의 가슴에는 미움의 불이 몇 번이나 있을까?”
“무찔러라 적! 미영(米英)을” 소리치고 있습니다

증오(憎しみ)

미조프 감옥에서 무도한 학대를 받은
우리 억류 동포의 신문 기사를 보아라
아아 이 비참한 마귀와 짐승의 처사에
누가 분하고 이 갈리지 않겠는가
누가 또 증오의 입술을 깨물지 않겠는가

생각하라, 우리 예의의 나라 동포를
남자도 여자도 알몸으로 만든 채
한 숨도 재우지 않는 야만의 이틀 낮 밤
영하 25도의 매서운 추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동사(凍死)시키려고 선풍기를 튼 것이다

머리에서 얼음물을 마구 끼얹어 숨을 끊게 하고
담뱃불과 달근 송곳으로 식인종의 고문을 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그리며 우는 영아의 입에
종이마개를 억지로 틀어넣고, 소리 내지 못하게 수건을 끼워 넣었다
아아 이 격한 증오를 어떻게 읽을까

태양 농사(日輪農舍)¹¹¹⁾

한여름 동안 들을 개간하면서
자기 집을 지을 일벌처럼
묵묵히 돌을 박고 기둥을 세우고
진수(眞水)의 우물도 파 올렸다

옛날 그대로의 일본의 혼으로
옛날 그대로의 조상의 발두둑을 밟는다
흙을 사랑하고 나라를 열매 맺게 하려고
새로운 반도의 농민 여기에 자란다

태양은 하루 종일 태양의 벽을 빗질하고
젊은이의 창들에 밝은 빛을 쏟아내고
달은 밤새도록 기와지붕을 적시고
온화한 대지의 꿈을 지킨다

좋은 날 365일(好日三百六十五日)

아름답고 또한 엄숙한
사계 순환의 빛 속에
쉽 없이 나는(飛) 시간의 화살이여
사라지지 않고 목숨이 흐르는
아아 신화(神話)의 혜성이여

지금 바로 새로운 대동아의
천문(天文)과 지리의 성스러운 지도 위에
커다란 세계극의 막을 내리고
이 1년의 꿈을 그려 온 자

111) 수확한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간단한 집.

우리 역사의 우렁찬 외침이여
제전(祭典)의 꽃들이여

밤낮을 비추면서
우리의 승리를 365일 껴매어 온
이 해(年)의 태양과 별빛이여
또 다가올 좋은 새해를 위해
올해여 잠시 안녕이다

또 그리운 지연의 보금자리를 돌며
노래와 깃의 아름다움을 다투고 있던
휘파람새여, 제비여, 종달새여, 학이여

너희들도 올해는 안녕이다

아아 또 우리들의 마음과 더불어
어떤 때는 잔뜩 노여움을 분출시키고
어떤 때는 차갑게 입술을 흐리게 하고
또는 바다의 갈매기를 태우고 하얗게 빛나며
대륙의 지평에서 빨강게 불타고 있었던
전운(戰雲)의 생각도 안녕이다

그렇지만 어우러져 피었다가 또 다 저버린
갓가지 초목의 꽃들이여
우거졌다가 또 대지로 돌아가는
여러 초목의 잎의 무리여
다가올 세상을 위해 씨를 뿌리는 자
역사의 손잡이를 살찌우는 연륜(年輪)이여
너희에게는 무슨 안녕이 필요할까
영웅을 생각하는 기도 속에서 안녕이다

꽃의 수수께끼(花のなぞ)

이미 겨울이 오고 국화도 졌을 무렵
마른 나무의 어떤 가지에도
은색으로 빛나는 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꽃입니다

그 눈이 모두 사라질 무렵
단 하나의 뜰에 심은 나뭇가지에
하나 둘씩 하얀 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화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맨 먼저
하나의 잎사귀도 달지 않고
일제히 피기 시작하는 황금 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나리입니다

그 다음은 언덕의 양지 부근에 고개를 숙이고
아이도 할머니처럼 허리를 굽히는 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본 할미꽃입니다

이윽고 혼슈(本州)에서 섬에서 바다 넘어
동에서 남에서 점점
동아시아의 야산으로 피어가는 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본의 벚꽃입니다

아침 밥상(朝のお膳)

어제도 어머니는 몸뚱이 차림으로
'훈련공습경보'를 외치며 달려왔고
그리고 밤에는 늦게까지
우리들의 속옷을 고쳐 주셨다

언제나 시원시원하게 싸우는 반장님
언제나 방긋방긋 웃으며 일하는 어머니
오늘 아침도 학교에 가는 우리들에게
날이 밝기 전부터 밥을 해주셨다

비록 엄청나게 탄환의 불길이 떨어져 와도
비록 엄청나게 물자가 부족해진다 해도
“너희들은 분명 지켜 줄게”
그런 말 한 마디도 하지 않지만

질그릇 화로에도 불은 활활 타오르고
흙으로 만든 그릇에도 국은 펄펄 끓고 있다
싱싱한 것은 여름의 하늘빛의
맛있는 채소가 사박사박 이에 스미는 일

저 미운 미영의 옆구리를 목표로 해서
어뢰가 되어 날아가 싸운
늦쇠 식기가 보이지 않는 밥상에는
새하얀 차완(茶碗)¹¹²⁾이 빛나고 있었다

테루테루 보즈(てるてる坊主)¹¹³⁾

열 평 정도의 우리 집 화단은
대부분 무너뜨리고 야채를 심었습니다
한가운데의 한 평만이 꽃이기에
바다의 창처럼 피었습니다

초봄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빛났기 때문에
이슬같은 비를 아침저녁으로 주었습니다
여름의 이 무렵은 사흘이나 내리기 때문에
꽃이 추울 거라고 테루테루 보즈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여운 꽃들은 젖은 얼굴로
“아가씨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일은 소풍 가는 토요일이니까
꼭 날씨가 맑을 것입니다”고 했습니다

지나¹¹⁴⁾ 대륙의 흙투성이 속에서
뉴스 영화를 하는 병사는 곤란해 하고 있었습니다
“위문대(慰問袋) 속에 테루테루보즈도 넣읍시다”
그 정원의 꽃들과 속삭였습니다

112) 밥공기.

113) てるてる坊主, 해가 들기를 기원하여 추녀 끝에 매달아두는 종이로 만든 인형.

114) 중국.

물총(水鐵砲)

문 앞의 커다란 방수 수조(水槽)
그 서까래에 둥근 바다가 가득 잠기고
그 밑바닥에 시원한 하늘이 구름을 씻고 있다

모형비행기 만들고 남은 대나무 재료로
어젯밤 만든 물총 두 자루 형제
꿀꺽 꿀꺽 하고 물을 빨아들일 때마다
바다는 물결 치고 구름은 부숩진다

하얀 먼지가 활활 타오르는 길가에
쑥쑥 사정(射程)을 경쟁한다
몇 만 킬로나 날아가서
마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의
잠에 취해 있는 얼굴을 딱 맞춰 주라

방공(防空) 펌프 훈련을 하고
지붕 건너편의 하늘을 겨냥했을 때
물총 앞으로 날고 있는 비행기여

아군기라면 이 축포의 만세를 받아라
적기라면 이 고사포(高射砲)의 탄환을 받아라

동심(をさな心)

세 살 아이의 발이 아장아장 뛰고 있다
고사리 같은 손을 들면서
아빠 아빠 하고 새를 부르고 있다
어느 거 어느 거, 정말이네-
높은 하늘에 비행기가 날고 있다

저것은 병사의 공중회전이라고 가르쳐 주면
다음 날부터는 아빠를 치면서
비행기 비행기 하고 외치고 있다
과연, 그것도 그렇네-
낮은 하늘에 소리개가 날고 있다

날면 비행기야, 비행기도
날기 때문에 소리개도 비행기야
하늘의 병사도 새인 거야
아아 형태나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는
동심은 목숨을 알고 있다

위문 사진에게(慰問寫眞に)

마을 처녀와 아주머니가
서로 물을 걷는 마음은 도나리구미(隣組)¹¹⁵⁾
서늘한 나무 그들의 우물가에
얼음 같은 물은 왜 파랄까요

“어제는 전쟁터의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이웃의 여러분에게 안부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서로 걷는 두 마디 천황의 말씀
여름을 잇으며 매미가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어, 어, 우물 중간쯤에
수수 벧대(藁柱)가 섰습니다
“젊은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네요”
처녀의 얼굴이 살짝 수줍어졌습니다

부름을 받고 떠나다(召され征く)

우리 젊은이들의
희망에 들 끊는 어깨 위에
맑게 갠 오늘의 아침 하늘이 부르고 있다
지구의 인력(引力)을 거꾸로 서게 하면서
빨아올려서 날게 해주고 싶다
끝없이 푸르고 높게

또 동글동글한 머리를 한 귀여운 소년들이
별처럼 빛나는 갈매기 눈동자를 부르고 있다
이윽고 수상기(水上機)의 날개가 뻗어가고

115)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말단의 지역 조직.

전함(戰艦)은 백호(白虎)와 같은 물결을 불 것이다
저 해원(海原)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있고
끝없이 넓고 푸르다

새로운 반도의 커다란 역사의 날
아아 1943년 8월 1일이여
나이 든 어머니들도 모두 유쾌하게
자신의 젓 곳간에 굳게 묶어 두었던 팔을 풀고
올타리 밑의 오랜 고삐를 끊고서
부름을 받는 나라의 뜰로 “가거라”고 격려의 말을 합니다

이날에 오르는 영예로운 우리 병사는
충의의 진심과 건설의 꿈을 안고서
죽어서도 돌아보지 않을 대군(大君)¹¹⁶⁾의 곁에
감격의 총을 바치며 나간다

아아 만세 우뢰(雷聲)에 손을 드는 그대들은
기쁨의 눈물에 말은 많지 않다
“가요” “갑니다”라고 말을 끊지만
“다녀오겠습니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위대한 전사(偉大なる戰死)

“야마모토 제독의 장렬한 기상(機上) 전사!
이 갑작스런 소식에 내 귀에는 열탕(熱湯)이 쏟아졌다
그렇지만 격한 놀라움과 슬픔은 다음 순간
내 눈을 적(敵) 미국의 물가에 분명 화나게 했다
내 이(齒)는 일 역의 적개심을 악물었다

저 12월 8일의 거대한 역사의 제1장은
“우리들의 제독 야마모토 대장”의 이름과 더불어 존재했다

우리 해군의 신기(神技)와 성과가 너무나도 화려하여
그 격렬한 고투(苦鬪)를 그다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대장 스스로 기상교전(機上交戰)의 꽃으로 산화해 갔다고 들었을 때
우리들은 후방의 충분하지 못한 싸움을 부끄러워한다

116) 황제.

아아 대장은 지금 없어도
그 싸움과 승리의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유지(遺志)와 피를 불태워 일곱 개의 바다를 삼키리라
시기는 좋다, 우리들 조선 백 만의 청년
지금이야말로 빛나는 해군의 전통을 잇고자
오월의 푸른 하늘에 양양(洋洋)한 삶과 죽음을 그리는(描) 가을

이 위대한 전사의 교훈에 가슴이 뻐어오고
대장의 명령 앞에 복수를 성취하는 것이다

싸우는 시인들에게

- 대동아문학자대회와 벗과 시모노세키에서 서로 만나다 -

십 억이 싸우는 문학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일 억 문학의 길은 무엇을 이끄는가
커다란 시신(詩神)의 창조의 손길이
역사의 혈선(血線)에 살짝 닿는다면
어떻게 훌륭한 음악이 울리는가를 자네는 안다

우리들은 대동아의 우정을 맺는 선로를 타고
소나무 산, 벼의 논을 눈으로 애무하면서
총신(銃身)의 묵계(墨契)를 닮은 터널을 달렸다
또한 적의 어뢰가 올 지도 모르는
백야(白夜)의 바닷길을 꿈꾸는 등에서 미끄러져
하나의 골짜기를 흐르는 계류(溪流)처럼 조선해협을 건넜다

아아 파란 바다, 녹색 산이 맑게 개는 보랏빛 아침
싸우면 또 조용해지는 일본의 항구에
동아시아 연맹의 문학의 벗은 손을 잡았다
오래전부터 보아 온 얼굴은 물결처럼 서로 무너져 내리고
미지(未知)의 눈은 비둘기처럼 서로 다정하게 지냈다

이날의 승리의 환희의 잔을
또 비극적인 인고(忍苦)의 잔도 서로 나누며
믿는 사랑의 운명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가
아아 대동아에 싸우는 시신(詩神)의 사절(使節)이여

마지막 꽃을 피우게 하는 진실한 존재는
우리들 마음의 무기와 노래가 아닐까

자신을 서로 아는 기도와 맹세 속에
참으로 격렬하게 살자는 것이 아닐까
그를 위해 아름답게 죽자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들의 묘지에 썩지 않는 시비(詩碑)는
자손들이 서로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잘 오셨습니다(ようこそ)

해 뜨는 나라의 새벽을 가리키며
화살처럼 달려온 배의 물길에
갈매기 떼가 창백한 얼굴로 춤추고 있다
아침 구름이 노란빛에 빨강게 빛나고 있다

3층의 왼쪽 뱃전에 선 우리들의 가슴에
일본의 바닷바람이 잘 오셨습니다 하고 환영 인사를 한다
15미터 바닥의 배 중간쯤에서 물보라는 일어나서
어젯밤의 잠자는 얼굴을 씻어주고 있다

이 물결 위, 바람 속에 되살아나는 것
영국 함대를 포격한 메이지시대(明治時代)의 선구(先驅)의 피여
지금 바야흐로 공동의 적 미영을 물리치는 불꽃이여
우방의 시인들에게 결전의 맹세를 노래하게 하라

멀리서 온 발길을 돌보고자 하는
따뜻한 빵과 같은 풍부한 땅으로
달려오는 선착장 입구에서 덜컹 경례를 한다
아아 동아시아의 초석을 위해 순직한 귀환(歸還)한 명령이여

현해탄의 물결은 철썩철썩
손짓을 하며 목소리를 내며 찾아온 뜻을 밀어 붙인다
시모노세키의 부두에는 저 멀리 도쿄에서 마중 나가
싸우는 문학의 깃발이 잘 오셨습니다 하고 울고 있다

(앞의 시와 같이 시모노세키에서)

투영(鬪泳)

신원(神苑)¹¹⁷의 숲 그림자에
구슬이 깨지듯이 수련장의 무대는 빛나고
젊은 인어의 투혼이 해엄을 친다
수정(水晶)을 부수는 시원한 물보라가 올라온다

활짝 갠 한 여름의 넓고 넓은 하늘에
한 마리 소리개가 녀을 잃은 채 쳐다보며 떠나지를 앓고서 원을 그리고
두 조각 구름 또한 거울의 수면(水面)을 훑치고
매미 소리조차 물에 젖은 채 서늘함을 흘린다

작은 뜬 상자(浮箱) 위에 팔을 맞잡고 싸우는 용맹스러움
지상(地上)처럼 뛰어다니는 수구전(水球戰)의 격렬함
수천일우(水天一宇)¹¹⁸로 뛰어드는 자폭(自爆)과 같은 아름다움
아아 일곱 개의 바다를 축소(縮圖)해서 싸움을 연마하는 자
(제10회 메이지진구 국민연성회(明治神宮國民鍊成會)를 참관하고)

나라¹¹⁹에서 추억하다(奈良に憶ふ)

가을바람이 나를 부르는 나라시대의 도읍지에
청단(靑丹) 좋은 빛에 젖어서 야마토(大和)¹²⁰를 추억한다
아아 성군(星君)의 덕을 경모(敬慕)하며
그 자신 덧없이 비극적인 최후로 끝난
저 백제(百濟) 장인의 예도(藝道)를 배우지 않았는가
깊이 가슴에 새긴 채 밟아가는 내 순례(巡禮)의 발길은
저 멀리 구름을 쫓으며 비원(悲願)한다

만엽(萬葉)의 모습 그대로의 들이여 산이여
아아 이 땅의 따뜻한 향기 속에
저 사람들의 묘는 깊이 녹아 있으리라
하늘을 찌르는 오래된 나무, 수줍은 풀에 물으며
길가의 돌에 놀라 어슴푸레 바라 본다

117) 신사(神社)의 경내.

118) 물과 하늘을 하나의 집으로 함.

119) 긴키(近畿)지방 중앙부에 있는 현, 또 그 현청 소재지. 나라시대(710~784)의 도읍지.

120) 현재의 나라현(奈良県).

의수원(依水園)이라는 뜰의 그윽함에 눈은 온화해지고
물이끼의 풍아(風雅)함¹²¹⁾에 감추어진 채 잠자는 오랜 연못의
정적(靜寂)의 부근에 마련된 청수암(淸秀巖)이여
그 얼음처럼 순결한 다실(茶室)에서 옷을 털고
차의 맛에 여행의 목마름을 적신다

아아 구슬을 깨는 듯한 감로(甘露)를 짓는 아름다운 그릇이여
이 고려(高麗) 밥공기(茶碗)의 청자에 내 혀는 부르르 떨러오고
팔굉일우(八紘一宇)¹²²⁾의 진실이 비행기로 쫓아온다
만세(萬歲)처럼 비탄함을 느끼며 밥공기를 들면
단풍이 들어 다리가 가느다란 신록(神鹿)¹²³⁾이 소리를 내면서
가스가(春日)¹²⁴⁾의 숲에 복종하고자 재촉하고 있다

(대동아문화자 대회에 가는 도중 나라에서)

불문¹²⁵⁾의 길(不文の道)

가련한 주산(珠算)과 자¹²⁶⁾ 그 망자(亡子)의 독수(毒手)¹²⁷⁾여
너희들은 어떤 나라의 별 아래에서 삶을 탐내는가
신문활자의 크고 작음에 현혹되는 불신(不信)의 안색(眼色)을 달고
보다 장엄한 신화(神話)와 사실(史實)에 귀를 기울여라

조선해협 아직 갈라지지 않은 일본해의 바람 젊고
파란 연(蓮) 잎을 이루는 잔잔한 해도(海圖)¹²⁸⁾에 갈매기 헤엄쳤노라
을자선(乙字線)의 두 조류(潮流)는 한난(寒暖)의 소용돌이를 껴안으며
같은 백성의 피가 되어 서로 주고받았노라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모래 벌에 물결은 희롱하고

121) 속되지 않고 정취가 있음.

122) 제팔방(八方)의 멀고 넓은 범위(範圍), 곧 세계(世界)를 하나의 집으로 함. 2차 대전 때 일본이 자국의 해외 진출을 정당화하는 슬로건으로 사용함.

123) 신사의 경내에서 기르며 소중히 여기는 사슴을 가리킴.

124) 나라시 가스가에 있는 나라타이샤(奈良大社)를 말함.

125) 글자로 써서 나타내지 않음.

126) 길이를 재는 도구.

127) 남을 해치려는 악랄한 수단.

128) 바다의 깊고 얕음, 해저(海底)의 성질, 암초의 위치, 조류의 방향, 항로 표지(標識) 등을 기록한 항해자 용지도.

청동의 바위에 만상(萬象)을 새기는 금강산(金剛山)의 영지(靈地)
거기 소시모리¹²⁹⁾의 신단(神壇)의 숲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鳴尊)¹³⁰⁾의 훌륭한 덕의 자취 또 그리워지고

이 성스런 신단의 뿌리는 갈라지고 씨앗은 뿌려지고
송백만수(松柏萬樹)의 가문이 선 그늘에 사람이 있는 암자는 잠들었노라
그 태평스런 꿈에 홀린 우주의 혼(魂)에 빠져
영원히 빛나는 은하수의 성좌(星座)는 태어났노라

또한 중세의 야마토(大和)와 백제 문화의 그림 두루마리를 생각하라
저 부여(夫餘)의 고란사(皐蘭寺)에 유학했던 야마토의 처녀들이
아아 삼천궁녀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옷을 찢으며
백마강으로 더불어 사라진 낙화암의 운명이 되었다

새삼 사람들이 말하는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인연인가
이 쓸모없는 수사(修辭)는 옛날의 풍속이 아니고
또한 자손의 세대에게는 부끄러운 유언(遺言)이 아니지를 앎은가
소리 높여 말하는 어찌할 수 없는 천성을 쓸쓸히 미소짓자구나 그대와 나

후기(あとがき)

나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 이것은 나의 제3 신민(臣民) 시집이다. 적당한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1부의 「보도시첩」은 1943년 5월말부터 6월에 걸쳐서 내가 조선군 보도반원으로 제1회 보도연습에 참가했을 때의, 실제 체험과 감동에서 얻은 33편이다. 이들 초고에 마지막 퇴고를 하기 위해, 나는 연습지(演習地)였던 평양 부근으로 새삼스레 갔었다. 그때 평양시화회(平壤詩話會)의 시인들과 밤을 새며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었던 추억의 하나이다.

조선군 보도부의 전 부장 倉茂閣下, 厚地 대좌님, 中川 대위님의 지도에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1년도 안 되어 이중 두 사람마저도 차례로 다른 곳으로 진출되었기에, 일종의 적요감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당시 같은 수통의 물을 서로 나누고, 야영의 꿈을 더불어 함께한 50여 명의 전우 제씨의 건투를 바라마지 않는다.

제2부의 「바다의 시 기타」에 수록한 작품은, 앞의 저서 『서사시어동정(敘事詩御東征)』의 권말에 붙인 작품 이후의 것,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얻은 것 22편이다.

이들 작품은 작년 초여름에서 늦가을까지의 것이다. 원고를 정리하고 나서 반년이 가까이 되어 겨

129) 고대 한국 남부의 지명.

130) 일본신화의 신.

우 교정을 마쳤지만, 이것은 온전히 인쇄 사정의 부자유가 원인이었다. 게다가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아끼지 않았던 발행소의 諸田良弘 씨, 川村光也 씨에 대해서는 정말로 폐만 끼친 것 같은 기분만 들뿐이다.

스스로 시작(詩作)을 하시는 조선군 보도부장 長屋 소장 각하로부터 광영에 넘치는 추천사를 받았고, 제1차 육군 미술반원 大智浩 씨가 남방 현지의 그림으로 표지를 장식해주신 것은 너무나 이 시집에 어울려, 더 이상의 감사의 말이 없을 만큼 커다란 가뻐이다. 시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나는 역시 행복하다. 절실하게 그렇게 생각된다.

1944년 4월 1일 경성에서 저자 쓰다

〈출전 : 金村龍濟 『報道詩帖』, 東都書籍, 1944년〉

4) 학도동원

금년 봄도 여름에 걸쳐
산의 나무가 바람을 불러
풀뿌리가 구름을 동경하여
그리하여 들에서 경작하는 사람들은
계절의 신들에게
흙 문헌 손으로 합장하여 기우(祈雨)를 했다

그 긴 한발(旱魃) 뒤에
천지를 적시게 해주는 것
비는 패연(沛然)하게도
감사하는 눈물어린 소리와 함께 내렸다

아아! 이날 영광스러운 출발을 노래할 때
당신네들은 기억해 낼 것이다
저 1월의 추운 하늘 아래에서
당신들의 선배인
학병을 보낸 장행회의 별 밤을
그때부터 반년
모교를 지키며 남은 자들
이날 또 때는 와서
학도동원의 전열(戰列)은 가지 않느냐

계속해서 가는 자는 가고
굳게 지키는 자 또 항상 대기하며

언젠가는 중학생도 여학생도
어린 국민학교의 아우들도
당신네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가는 자
남는 자
동원의 노래는 청춘의 열풍에 불타서
모교의 2층에 넘쳐흘러서
맑은 감격의 눈물을 흐르게 한다

이제 격전의 하늘에 구하는 것은
청년의 바람인 것이다
청년의 구름이며 비인 것이다
그 뒤의 청춘의 꽃인 것이다

당신네들의 손이
동원의 땀을 쥐었을 때
싸움의 바람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 손을 한차례 흔들면
비행기구름이 하늘에 가득 차고
적을 쳐부수는 폭탄의 비는 올 것이다
그러한 것을 나는 확신한다

아아! 당신들 가는 자
또 남는 자
다만 학교 이름과
학도의 영예를 지켜나가라

이와 같은 장렬한 헤어짐 속에
자랑스러우면서 또 신중하게
격한 생각을 간직하며 조용히 말한다
“안녕”
“안녕”
오오! 맑은 뜨거운 눈물이어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의 장행식에서 읽다)

〈출전 : 金村龍濟, 學徒動員, 『東洋之光』 제6권 9호, 1944년 9월〉

5) 나는 백 퍼센트 고향 쌀 맛을 알고 싶다!

우랄산맥의 지평선에는
만종(晩鐘)의 슬픈 소리도 황혼 가운데 꺼져서
서양의 “태양은 이미 지고 있다!”
그것은 니체의 미친 듯한 예언이 아니다
아세아의 야인(野人)의 겸허한 조사(弔詞)인 것이다
서양문명의 할아버지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세아인은 본래 노예적”이라고 방언(放言)을 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닌 자랑을 주장하기 전에
그 문명을 두려워하고 숭배했을 뿐 아닌 것이다
천혜(天惠)의 미주(美酒)처럼 취하고
노예처럼 낮잠을 자 왔던 것이다!

서양의 태양이 저문 암흑 속에
문명의 신은 악마의 춤을 추고 있다
우리가 문명의 취함으로부터 깨어났을 때
자유주의의 라벨은 노예표시로 변하고 있었다
사회주의의 테제는 독재자의 법전으로 바뀌고 있었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 우리는 고통을 받았다
어떤 자는 절망에 울부짖고
어떤지는 문명의 피를 토하고 땅에 넘어졌다

이것은 웃지 못 할 난센스
그것은 슬픈 노예의 로맨티즘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역사가 있다 하나의 현실이 있다
여기에 아세아로부터 세계로 향하는 지도가 있다
우리가 헤매는 들판으로 나아가는 길도 아세아의 천지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또한 죽는 땅도 이 아세아다
우리가 노예의 꿈에서 깨어난 밤—
아세아의 지열(地熱)은 고향사랑의 따뜻함을
피곤해서 식은 아이들의 등에 직접 주고 있는
아세아의 아름다운 별빛이
드러누운 얼굴에 잊었던 노래를 속삭이고 있다.

아아! 어머니인 아세아의 그리운 자연의 품 안이여
생명의 고향이여! 혼의 고향이여! 문화의 고향이여!
넓은 아세아는 우리의 어머니다
새로운 아세아는 우리의 동포다

여기에 조용한 생명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
“넓은 아세아의 고향으로 돌아오라!
그리하여 새로운 아세아 정신에 살아라!”
인도의 숲에 그것은 울리고 있다
양자강의 기슭에 그것은 일어나고 있다
압록강의 물결에 그것은 솟고 있다
부악(富嶽)의 정상에 그것은 외치고 있으며

여기에 장렬한 진군나팔의 울림이 있다
조국과 인류의 희망을 건 지나사변이 불타고 있다
거기에 우리 사는 방식의 운명과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은 아세아인끼리의 단순한 전쟁은 아니다
아세아평화애로 비장한 전야(前夜)의 폭풍인 것이다

나는 오늘의 전쟁 시(詩)를 노래하고 싶다
나는 내일의 건설시를 노래하고 싶다
그것은 시(詩)의 정치화애의 전철이 아니다
그것은 크다란 현실로의 시신(詩神)의 부딪힘인 것이다

나는 아세아의 부흥을 위하여 싸우고 싶다
동시에 새로운 아세아정신을 조용히 창조하고 싶다
나는 일본국민의 애국자로서 일을 하고 싶다
동시에 새로운 일본정신을 깊이 배우고 싶다
나는 조선민중의 참다운 행복을 위하여 일하고 싶다
동시에 그리운 자장가를 순진하게 노래하고 싶다
거기에 나는 감정의 모순을 조금도 느끼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아세아적인 조화가 있을 뿐이다

영웅주의의 공상은 청년의 어제의 꿈인 것이다
테로 리스트의 망상은 무력한의 옛날 열병인 것이다
나는 인간으로서 왕성하게 일하며

시인으로서 조용히 노래하고 싶다

서쪽의 태양은 이미 지고 있다
황혼의 그림자는 추억을 잠재워라
동방의 태양은 이미 새벽을 알리고 있다
여기에 아세아의 새로운 시를 칭송하라!

나는 이론이나 사상으로서의 아세아주의를 배우고 싶다
동시에 말하고자 해도 말할 수 없는 아세아의 시취(詩趣)를 맛보고 싶다
아세아의 맛은 쌀 맛에 닮았는지 모른다
맛이 있는 것처럼 맛이 없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이여
나는 백 퍼센트로
고향의 쌀 맛을 알고 싶다! (1939년 2월)

〈출전 : 金村龍齋, 亞細亞の時, 『東洋之光』 제1권 제3호, 1939년 3월, 62~66쪽〉

6)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라는 분은 최상등급의 군자올시다
나라는 분은 최고급의 영우올시다
나라는 분 군자는 중우(衆愚)의 죄를 다스리는 사표(師表)인 것이야
나라는 분 영웅은 범속(凡俗)의 머리를 때리는 지도자인 것이야

이놈 이놈
나라는 분의 교훈을 명심하며 꿈에서도 잊지 말라
“네, 네, 당신님의 행실마저도 후배들을 위하여 삼가 모시겠습니다”

나라는 분의 다리는 태생적으로 절름발이어서
그렇게 무서운 소동에도 매우 침착하여
단지 50걸음의 용감한 걸음을 당당하게 옮겼으나
너희들은 빠른 걸음으로 백 걸음이나 도망치지 않았느냐
“네, 네, 당신님의 혈통이 훌륭하기에……”
나라는 분이 성냥을 매점(買占)을 했을 때에
너희들은 담배를 매석하지 않았느냐
나라는 분이 열가마의 숯을 벽장에 숨겼을 때는
너희들은 백가마의 쌀을 창고에 쌓아 두지 않았느냐

“네, 네, 당신님은 돈이 없는 것이 안 되었군요……”

나라는 분이 1엔의 암거래를 했을 때에
너희들은 백엔의 암거래를 했지 않았느냐
나라는 분이 10엔을 속이고 있을 때는
너희들은 만엔의 폭리를 했지 않았느냐
“네, 네, 당신님은 자비심이 특별하니까……”

나라는 분의 돼지는 황금색의 똥을 몇 떨어지게 잡수는데
너희들의 돼지는 시궁창 냄새가 나는 겨를 쳐 먹고 있지 않는가
“네, 네,
당신님처럼 취미가 고상하기에……”

[작자 붙임] 이 시집도 본지나 기타 지상에서 상당한 편수를 낳고 왔습니다. 전쟁의 시를 중심으로 쓴 것이나, 이 이후는 후방의 시를 중심으로 생활의 기쁨을 노래해 갈 작정입니다.

〈출전 : 金村龍齋, おれ様は, 『東洋之光』 제3권 제1호, 1941년 1월〉

7) 12월 8일¹³¹⁾

눈구름을 토하는 절벽의 암두(巖頭)에도
향연(香煙)이 가물대는 석불(石佛)의 웃는 얼굴에도
모두 얼어붙은 한 색으로 모두 차다
12월의 추운 겨울은 왔도다

첫눈의 향내 나는 하얀 땅은 끝도 없다
나 새벽의 추위에 서서 동쪽 하늘을 요배(遙拜)하고
붉은 맨발의 발을 정갈히 하고 나아가고자 한다
아아! 한 조각빙심(氷心)이여 더욱더 응어리져 나의 구슬이 되라

이윽고 전쟁의 하루가 또 시작이 되고
광풍은 불어와서 눈보라를 일으키려 한다
좋아! 내 얼굴 내 머리카락을 갈기갈기 잘라내도
적을 노려보며 빙그레 웃으며 삼척(三尺)을 지켜들 것이다

131) 대동아전 1주년 기념시. 태평양전쟁 개전일.

멀리 만리의 정야(征野)는 눈을 뒤집어쓰고
고귀한 한 방울의 피도 선명히 불을 밝힌다
대동아의 성전을 축하하며 미래를 맹세하는 날이여
아아! 12월 8일은 또 오도다

〈출전 : 金村龍濟, 十二月八日, 『東洋之光』 제4권 제11호, 1942년 12월〉

8) 일본의 아침

기원 2천6백3년
이겨나가는 나라의 해의 선물
일본의 아침은 잘 개었습니다
경성거리의 어느 집에도
일장기가 세워졌습니다
사이좋은 나라들인 대동아
10억이 맞이하여 축하합시다

조선신궁의 첫 참배
화강암 돌계단 높게까지
군인아저씨와 올라갑니다
남산의 푸르른 소나무 숲 향내
천 대 팔천 대까지 영화스럽습니다.
“우리는 5백의 소년병이다”
“저희들은 3백의 간호부입니다”
깊숙한 경례에 몸을 가다듬고
올해도 언제나 이길 수 있도록
신의 대전(大前)에서 뵙니다
하나의 나이의 힘만큼
이겨 내겠습니다라고 맹세합시다
나도 저도 황민의 자식들
일본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시 金村龍濟 씨
그림 江口敬四郎 씨

〈출전 : 金村龍濟, 日本の朝, 『朝日新聞』, 1943년 1월 5일〉

9) 갑종(甲種)

이 나라의 어머니로부터 젖을
세살 때까지 탐을 내었다
이 나라의 흙으로부터 양식을
50섬을 씹어 돌렸다
이 나라의 푸른 대기(大氣)를
끝없이 빨며 쫓았다
이 몸의 짧은 벌거숭이는
정미(正味) 몇 킬로, 몇 미터 되는가

이 최초의 검사를 10시간 앞서서
조용한 우리 집 아랫목에 눈을 감는다
이 어깨의 무거움을
몰래 마음으로 재어 본다
이 목숨의 가벼움을
무아(無我)의 만세로 우화(羽化)시키자
이런 생각에 오래도록 불타는 벼
아아! 몇 십만의 별을 헤아릴 인가

이 천황의 시대의, 이 성전을 위하여
내선동조의 피는 무궁한 실을 이어며
이 21의 영광스러운 대마디를
우리들의 위에 맺은 것이다
이 밤의 한창인 꿈의 불은
돌을 구워서도 갑종의 빛을 내며
이 봄 어린나무의 꽃에
화려하게 피게 하라, 취하기 시작하자

〈출전 : 金村龍齋, 甲種 『東洋之光』 제6권 제4호, 1944년 4월〉

10) 용모

야생의 복숭아의 치장은
너무나도 진한 붉은 색으로
꽃잎이 입술처럼 두껍게 보여
냄새는 조금 쓴 꿀과 같다

활발한 나비가 되고 있었던 내 눈시울에
어릴적 흥역으로 가버린
슬픈 누이동생의 용모가 떠오르며
꽃인 양 당황했다

벚꽃이 한꺼번에 활짝 피면
나는 달력의 숫자를 잊어버린다
- 봄은 백일의 겨울을 넘어서
가만히 오는 곳은 아니었다

흠어질 때도 봄바람을 활짝 물들이는 하늘에
폭음의 임자를 잘 보려고 눈을 감았다
든든한 기상(機上)소년의 얼굴이
벚꽃 색깔로 웃으며 갔다

〈출전 : 金村龍濟, 용모, 『東洋之光』 제6권 제4호, 1944년 4월〉

11) 농성(籠城)

산서성(山西省)의 산 깊숙이
용감한 우리 기병대는
적진 속을 꿰뚫어 갔다

대륙의 가을은 깊이
관목(灌木)의 숲은 저녁 해에 비치며
붉은 단풍 색은
전사(戰士)의 마음에 타서 돌아오고

둘레는 모두 토치카의
산 또 산
골짜기 또 골짜기
전후좌우에는
적의 대군이 우굴거리며
아군은 열세
말은 나가지 못하고
군사는 물러 설수 없고

아군과의 연락은 끊어지며
원군은 오지 않고
한 달의 양식으로
넉 달의 겨울을
굶주림과 추위 속에 농성하며 견뎌낸다

붉은 흙의 산 옆구리에
참호 식의 구멍의 방을 파서
비육의 탄¹³²⁾을 견디면서
잠자는 사자처럼 굶주림과 싸운다

아아! 전사(戰死)보다도 슬픈 것은
쓸쓸한 굶주림의 슬픔이여
선량한 군마(軍馬) 마저가
동료의 갈퀴를 뜯어먹으며
동료의 꼬리를 물어뜯어서 입 가득히
그 처참한 생은
죽음보다 애처롭다

농성장 가까이에
먹을 것을 징발할 부락도 없고
병사도 또한 움직이지 못한다
마지막 양식이 끊어진 뒤부터
나뭇잎사귀나 나무껍질을 씹으며
풀 열매나 풀뿌리를 먹는다

아아! 그 고난 속에 있으며
승리와 목숨을 믿으면서
전쟁과 우군을 기다린다
그 눈물겨운 농성의 생활이여!

〈출전 : 金村龍濟, 籠城 『東洋之光』 제1권 제9호, 1939년 8월〉

132) 脾肉之嘆 : 공명을 세우거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오지 않는 억울함 : 유비가 말을 타고 전투에 나가지 않는 날이 계속되어 넓적다리의 살이 찢는 것을 한탄 했다는 것.

5. 김종한

1) 대기(待機)

다시 온 12월 8일

눈이 흘날리고 있다
차분하고 조용하게 눈이 흘날리고 있다
그 가운데를 희희낙락하며 너희들은
누이여 사촌이여 아우여
배움의 집으로 서두르고 있다.
기나 긴 창경원의 돌담을 따라서
눈이 흘날리고 있다

차분하고 조용하게
눈이 흘날리고 있다 흘날리고 있다
아우여 사촌이여 누이여
그것은 내리는 너희들의 어깨에
풍성한 머리카락에 온종일 찢어진 모자 위에
10년 젊어져서 나도
너희들과 발걸음을 함께 하고 있다
눈이 흘날리고 있다

틀림없이 작년 12월 8일에도
눈이 흘날리고 있었으리라 그때부터 1년
싸움은 파노라마처럼
남쪽 바다로 넓어져 갔다.
그리고 너희들은 밥이 맛이 있는 것을 배운 것이다
사촌이여 누이여 아우여
너희들 위에 눈이 흘날리고 있다

눈이 흘날리고 있다
길고 긴 창경원의 돌담을 따라서
그렇게도 계절이 엄혹한데도 순진한 너희들에게
굳이 무엇인가 해야 할 말이 있을까

눈이 훑날리고 있다 차분하고 조용하게
누이여 사촌이여 아우여
눈이 훑날리고 있다 너희들의 성장 위에
온종일 눈이 훑날리고 있다

〈출전 : 金鐘漢 待機 『國民文學』 제2권 제10호, 1942년 12월〉

2) 오늘은 육군기념일

이 그림책을 보세요, 어머니!……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점령하는
터벅터벅
쿵쿵쿵쿵
명령 한마디에 흔쾌히 사지에 뛰어들어 자신을 가지고 의연하게 싸우는……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어머니! 세계 어느 나라에 또 있을까요?

★

이 그림책을 보세요, 어머니!……신령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시고 神明의 가호를 받는
터벅터벅
쿵쿵쿵쿵
올바른 것은 무(武), 武로 하여금 인(仁), 복종함은 □□하지 않고, 따르는 것은 慈悲……이런 아름다운 풍속이 세계 어느 나라에 또 있을까요?

★

어머니! 이 그림책을 보세요, 陸軍記念日이란 그림책을……百戰百勝의 전통으로 새로 바꾼, 새로운 동아시아의 지도를 보세요
터벅터벅
쿵쿵쿵쿵
몸과 마음의 모든 힘을 다하여
서두르지 않고 유구한 大義에 살아가는
당신의 아들에게도, 어머니! 드디어 징집의 날이 가까이 왔어요!

〈출전 : 金鐘漢 けふ陸軍記念日, 『京城日報』, 1943년 3월 10일〉

3) 모자

엄청나게 많은
모자의 흐름 속에
네 모자도 흐르고 있다

아우여
네 모자도 흐르고있다

엄청나게 많은
모자의 흐름 속에
네 모자도 흐르고 있다
아우여
지금은 즐거운 등교시간

졸업하면
군인이 되겠다는
기운이 흘러 넘쳐
모자 천장에
그럴듯한 바람구멍을 뚫어 버렸다

군인이 되겠다는
아우여 훌륭하지 않은가
따뜻하게 비치는 아침햇살을 맞으며
네 모자는
망가진 철모보다도 아름답구나

엄청나게 많은
모자의 흐름 속에
네 모자도 흐르고 있다
아우여
네 모자도 흐르고 있다

〈출전 : 金鐘漢 帽子, 『國民總力』 제5권 제15호, 1943년 8월 1일, 6~7쪽〉

6. 노천명

1) 진혼가

야자수 우거진 숲 사이에
버섯처럼 희게 덮힌 묘표(墓標)들

동양 정의의 꽃이 남국에 만발했다

한밤중 싱가포르 함락을 라디오에서 듣는 순간
거룩한 피를 흘려준 무수한 군인들을 생각하노라

고마운 마음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
감격은 마음에 넘쳐
만세를 부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대동아건설의 초석이 되어준 그대들
영원히 빛나는 죽음이어라

조국을 위해 용감했던 청년
정의를 위해 불탄 용사여

우리의 새나라 남쪽하늘 아래
평안히 쉬라

그대 머리위에 일장기가 나부끼어 보호하나니
형제여 평안한 마음으로 고이 쉬라

남쪽엘 가거든 그대들 무덤위에
꽃다발을 뿌려주마

〈출전 : 蘆天命, 鎮魂歌, 『매일신보』, 1942년 2월 28일〉

2) 흰 비둘기를 날려라

지난해 오늘
태평양바다가 아직 잠에 묻힌 새벽
찬물결 몸으로 비며 어뢰(魚雷)를 안고
진주만 뛰어든 용사들이 있었거니

벚꽃처럼 뿌려진 일본의 혼(魂)—청춘—
명복을 비는 조용한 정오 다시 눈이 뜨거워

아홉 군신(軍神)의 붉은 총성 뒤엔
뛰어나는 아홉 어머니가 숨어있었다
군센 '일본의 아내'가 숨어있었다

“돌아오면 안 된다 죽어오너라”
안 보면 보고싶고 늦으면 걱정하며 아껴 기른 아들
나라에서 부르시는 아침엔
이렇게 내놓았다

마지막 작별도 웃고 지은 가슴속엔
슬픔을 넘어선 거룩한 경륜이 있었다
오늘 흥그러운 잔치 이 돌상에
난 무엇을 가져다 올려놓으랴

추녀끝 드높이 나무끼는
일장 깃발도 유난히 선명한 이 낮
고운 처녀들아 꽃을 꺾어라
푸른 하늘에 흰 비둘기를 날려라

〈출전 : 蘆天命, 흰 비둘기를 날려라, 『매일신보』, 1942년 12월 8일〉

3) 출정하는 동생에게

‘전문 대학생도의 총동원령’
신문을 받아 들던 순간
너와 나는 병어리모양 말을 못했다

에서 더 엄숙한 시간이 일찍이 있었더냐

“너희는 나오지 말고 모쪼록 공부를 하고 있거라”
학창(學窓)에 고이 보호해 오시던 너희를
“나오라”고 부르시는 오늘의 그 엄숙한 마음속을
동생아 너는 잘 알 것이다

그러기에 긴 밤 시험공부에 충혈된 네 눈에서

이 아침 심상치 않은 광채를 내가 본다
말이 없는 네 입가에서 이상한 정기를 내가 줍는다
오냐 네 결의(決意) 고맙다.

내 동생이거든 그렇게 용감히 나가다우
삼천만민족의 대표로 장엄하게 나가다우

군복을 갖추어 입은
네 깨끗한 □자(□姿)
□□한 군인으로 험한 산을 넘고
들을 건널 씩씩한 네 모습을

가슴속 그려보며
누이는 감격에 눈물이 핑 돈다

아세아의 새 역사를 짓는 날
대동아건설의 금자탑 막음을 쌓는 이 마당에
조선의 청년학도들도 참가하라 부르신다
오—, 이 영광

삼천리 반도강산에 찬란한 빛이여
너 어서 군인의 □□으로 갈아입고
바삐 저 결전장으로 달려다우
교문을 박차고 어서 나의
남아답게 달려가다우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네 '청춘'도 '꿈'도 '사랑'도
네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 남김없이
너는 조국을 위해 아름답게 바쳐다우

오! 숭고한 순간이여

세상에도 성스러운 일이여
일찍이 네 머리때가 묻은 각모(角帽)

네 체온이 깃들었던 제복
장장이 네 손길이 간 대학노—트를

누이는 고이고이 간직해두고
밤이면 밤마다 꺼내보며
날이면 날마다 조국의 무운을 빌고 있을 것이다.

〈출전 : 蘆天命, 出征하는 동생에게, 『매일신보』, 1943년 11월 10일〉

4) 군신송(軍神頌)

항시 기록한 역사엔 피가 흘렀다
아름다운 장(章) 위엔 희생이 있었다

유리 같이 맑은 하늘 아래
조국은 지금 고요히
세기의 거체(巨體)—

새 아세아를 바로잡고 있다

앞으로 앞으로 오직 돌진이 있다

이 아침에도 대일본특공대는
남방 거친 파도 위에
혜성모양 장엄하게 떨어졌으리

싸움하는 나라의 거리다운
네거리를 지나며
12월의 하늘을 우러러본다

어뢰를 안고 몸으로
적기를 부순 용사들의 얼굴이
하늘가에 장미처럼 핀다
성좌(星座)처럼 솟는다

〈출전 : 蘆天命, 軍神頌 『매일신보』 사진판, 1944년 12월〉

5) 신익(神翼)

청자(靑磁)빛 하늘가에
보이지 않는 신익(神翼) 소리를 들으며
이천만 동포의 피가 비등(沸騰)한다

우리 지금 물 끓듯 감격함은
송장(松井)오장(伍長)의 장하고 엄한 죽음이어라
11月 29日!
우리 송정 오장이
거룩한 죽음을 약속한 이날
해와 달이 무심했으랴

레이테 만의 거친 파도를 베며
어뢰를 안고
몸소 적함에 부딪쳐
그대 혜성처럼 떨어지다
오! 숭고한 최후여
그 용감한 투혼에 기백에
조선의 청소년들아 뒤를 잇자

그 몸 레이테 만 속에 가라앉았으나
충혼 정든 조국의 하늘을 날아
영원히 우리 안에 거(居)하리
죽으려 떠나던 마당
상관이 부어 주는 마지막 술잔
받아드는 얼굴은
지극히 조용하고 겸손했다

일찍이 어느 나라 민족이
죽음을 이처럼 용감하게 태연하게
받은 일이 있었더냐
나 이제
옷깃을 가다듬고
명복을 비나니

그대
내 머리 위에
성좌같이 빛나도다

〈출전 : 蘆天命, 神翼, 『매일신보』, 1944년 12월 6일〉

6) 학병

차마 보고 있을 수 없어—
차마 듣고만 앉았을 수 없어—
학원 안엔 ‘學兵’이 일어났다

책을 덮는 날
목숨을 내뿜다

청춘의 온갖 정열을 쏟으며 나섰다
조국을 위해 오직 조국을 위해

대학모에 붉은 피를 가슴에 메구
전열에 나서는 학도들—

오! 동편 하늘에 퍼지는
아침 햇살처럼 장엄하여라

깃발들이 물결치고
만세 소리가 우레같이
하늘과 땅을 사뭇 흔드는 틈에

너
거기서 태양처럼 빛나도다

〈출전 : 蘆天命, 學兵, 『窓邊』, 1945년 2월 25일, 87~89쪽〉

7) 창공에 빛나는

사람이

남(藍) 하늘을 은빛 나래로 차
태고적 전설을 깨트리다

칩칩 구름을 헤쳐 헤쳐
쏟살 모양 달릴 제
옛 어른들 흠속에서 깨워 보여지고

높은 산 험한 멧부리를 발 아래 내려보며
독수리 모양 지긋이 응시함은
그 어느 호반 중의 호반이뇨

오늘도 우리
항공대는 남녘 어느 하늘가
자지러지는 업더지는¹³³⁾ 적군의 저 성성이 무리 위에
수리개 떼¹³⁴⁾처럼 잉잉대리

〈출전 : 蘆天命, 蒼空에 빛나는, 『창변』, 1945년 2월 25일, 85~86쪽〉

7. 서정주

1) 송정오장(松井伍長) 송가

아아 레이테 만¹³⁵⁾은 어테런가
언덕도
산도
뵈이지 않는,
구름만이 둥둥둥 떠서 다니는
뗏 천 길의 바다런기.

133) '엎드러지는데'의 뜻.

134) '솔개'의 방언.

135) Leyte Gulf, 필리핀의 灣.

아아 레이테 만은
여기서 몇 만리런가…….

귀 기울이면 들려오는
아득한 파도소리…….
우리의 젊은 아우와 아들들이
그 속에서 잠자는 아득한 파도소리…….

×

얼굴에 흥조를 띠우고
‘갔다가 오겠습니다.’
웃으며 가더니
새와 같은 비행기가 날아서 가더니,
아우야 너는 다시 돌아오진 않는다

×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사람.
인(印) 씨의 둘째 아들. 스물한 살 먹은 사내.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신풍(神風)¹³⁶⁾특별공격대원.
정국대원(靖國隊員)¹³⁷⁾.

정국대원의 푸른 영혼은
살아서 벌써 우리게로 왔느니,
우리 숨쉬는 이 나라의 하늘 위에
조용히 조용히 돌아왔느니

×

우리의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낸 비행기 한 채에
그대, 몸을 실어 날았다간 내리는 곳,
소리 없이 내리는 고운 꽃처럼

136) 가미카제.

137) 정국대. 즉 ‘야스쿠니타이’는 비행부대 이름.

오히려 기쁜 몸짓 하며 내리는 곳,
쪼각쪼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국 군함!

수백 척의 비행기와,
대포와, 폭발탄과,
머리털이 셋노란 벌레 같은 병정을 신고
우리의 땅과 목숨을 뺏으러 온
원수 영미국의 항공모함을,
그대 몸뚱이로 내려져서 깨었는가?
깨뜨리며 깨뜨리며 자네도 깨졌는가!

×

장하도다
우리의 육군항공 오장 마쓰이 히데오여.
너로 하여 향기로운 삼천리의 산천이여.
한결 더 질푸르른 우리의 하늘이여.

×

아아 레이테만은 어데런가
뗏 천 길의 바다런가.

귀 기울이면
여기서도, 역력히 들려오는
아득한 파도소리…….
레이테만의 파도소리…….

〈출전 : 徐廷柱, 松井伍長 頌歌 『매일신보』, 1944년 12월 9일〉

8. 윤두헌

1) 전승의 세모(歲暮)

2601년¹³⁸⁾은 감격과 흥분 속에 저문다
만일 이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의 연말 인사는 평범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138) 皇紀 연도를 말함. 西紀로는 1941년, 즉 태평양전쟁 開戰年임.

2601년 12월 8일¹³⁹⁾.....

역사는 드디어 새로운 궤도에 돌입하였다

오랫동안 남의 손에 맡겨 황폐해진 동아(東亞)를 우리 손으로 되찾는 싸움은 시작된 것이다
육지로 바다로 너른 하늘로 무적 황군의 승진보는 전해진다

뉴스 속보판에 모여드는 사람들

라디오 앞에 모여드는 군중

감격과 긴장과 흥분으로 주먹을 움켜쥐며 함성을 올리는 민중에게 총검을 쥐게 하라

340년¹⁴⁰⁾ 동안 착취와 압제의 편자에 유린당한 10억¹⁴¹⁾ 민중에게 복수와 설욕의 기회를 주어라

전쟁은 역사를 만드는 천재(天才)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일어선다

난관에 부딪혀도 장애를 만나도

10억 민중과 함께 나는 일어서서 싸워 이긴다

아시아에 아침이 찾아왔다

각성하라 10억 동아시아의 주인.....

진군나팔 소리가 들려온다

성전(聖戰)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출전 : 윤두헌, 戰勝의歲暮, 『國民詩歌』, 제2권 제3호 1942년 3월, 83쪽〉

9. 이찬

1) 송(送) 출진학도

너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 있다

이 사람들이 다만 □□나를 위하여 있다

나는 조금도 친하지 못한 양 네게 가까울 수 없고

네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이도 동생도 이 물결을 에워싼 □□리 위에 그저 우리와 함께 있다

139) 태평양전쟁 기전일.

140) 341년 전인 1600년은 영국이 동인도회사를 창설한 해임.

141) 아시아인의 인구 수.

이미 너는 한 사람의 벗도 아니고 이미 너는 한 가족의 아들도 오빠도 형도 아니고 이미 너는 너의 너도 아니다

너는 이 모든 사람들의 것 늙은이 젊은이 아낙네 어린이 온 마을의 온 거리의 온 저자의……

가거라 씩씩하게 이 넘치는 적성(赤誠)을 지고 당당한 □軍의 門 순국(殉國)의 길로
□□□□ 흥망의 마당 세기의 □□□□으로

황해만리(黃海萬里) □□의 □
千古□□ 北□의 □

꿈길로 익어 드는 □□의 저녁!
입김도 얼어붙는 북국(北國)의 찬 새벽!
터지는 만세 속에 뒤덮는 깃발 위에
손은 □□ 힘차게 건네는 너의 마지막 인사!

아 세월이여 □□□□ 도래할 □□□ □□□□에
오늘 우리 □□·半島의 이 壯한 出□□.

〈출전 : 李燦 送·出陳學徒 『매일신보』, 1944년 1월 19일〉

10. 조우식

1) 가족송가

손바닥에 서리의 아침이 와서
지붕 위를 얽한 세월의 주름이 흘러

따뜻한 밤밥(栗飯) 식사에
대범한 족속의 맹세는 맺어져
나비같은 아가씨들의 재잘거림은 마르지 않는다
가미다나¹⁴²⁾의 성화(聖火)는 영원히 타오르고
사키모리¹⁴³⁾의 성장은 분명하게 눈에 띈다

142) 神棚. 일본 神道에서 가정이나 상점에 모셔 놓는 작은 제단.

143) 防人. さきもり. 옛날 도쿄쿠(東国) 등지에서 징발되어 기타큐슈(北九州)의 요지를 경비하던 병사. 변방을 지키는 사람.

사랑하는 족속이여 꼭 잡은 손의 온기가
마침내는 옥체의 구석구석을 데울 때
영광스러운 야마토의 우수(幽邃)한 신가(神歌)는
너희들의 골육을 뚫고 목구멍을 통해 말(言語)이 된다

즐거운 아침의 식사를 열매 맺어
탐스러운 꽃 냄새가 난다
밤이라도 되면
손바닥의 서리는 엄숙하게 빛날 것이다

〈출전 : 趙宇植 家族頌歌 『國民文學』 제3권 제6호, 1943년 6월〉

2) 고향에서

이끼 끼어 흐르는 역사의 지표(指標)에
슬픔을 새긴 자여.

1.

이곳에 조상의 쓸쓸함이 있고
아버지 혼의 비명(碑銘)이 있다
마을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잔치의 촛불이 활활 타오른다.

거짓되지 않은 오늘의 의례가
내일의 초를 만들고
햇불의 밤은 빛나
몸에 감긴다
파의(破衣)의 마음에 체취가 있고
거기에 고향의 범종이 있었다.

2.

아저씨 등 뒤를 흐르는 체온은
무상(無常) 가운데 자라고
정취를 쓰다듬는 나의 뺨은
누구도 꿈꾸지 않는 도정이었다.

열매 맺는 보리 이삭에서 생명을 노래하는 새들의 장난에
촛불은 흔들려 흔들려 열매 맺는다

마을 아이는 각반을 차고
신병(神兵)이 되기 위해 마을로 향한다
어머니가 가슴을 펴고
다리(脚)를 밟아 고르고
나이의 휴식에 기도할 때

오! 고향의 밭에 밤은 차고
먼 여수(旅愁)의 꿈은
풍선처럼 꽃 피우는 것이었다

〈출전 : 趙宇植 故郷にて, 『東洋之光』 제4권 제10호, 1942년 11월〉

3) 동방의 신들

영겁 생명의 산화
심오한 멸사(滅私)의 흥소(哄笑)여.

조국에 대한 한없이 넘치는 사랑의 비말(飛沫)은
영원한 역사를 꿰뚫고
오늘도 영광으로 비상한다.

찬란한 혈액의 개화는
변모하는 지도에 경건한 기도를 드리고
민족을 위해
천황폐하(大君)를 위해
똑같이 잔을 채운 형제를 위해
장엄한 건설을 잉태했다.

맑고 고고한 것
내포하는 전통을 표상하고
불후에 빛나는 용사의 호흡이여.

위대한 동방의 신들
비통과
감정과
사욕을 떠나

조국의 사랑을 채색하는 영지(英智)의 불꽃이여.

동방에 제사 지내는 태양의 방과제에
뒹여진 용맹한 금빛 소리개의 광휘가 있고
흔들림 없는 조상들의 말씀(詞)과
숭고한 자비의 지표가 있었다.

청춘을 걸고
선량한 생명을 걸고
소박한 풍습과 행복을 걸고

천황폐하를 위해
민족을 위해 죽는 혼이여.

편안히 쉬어라.
지금도 아직
남방 바다에 존귀한 예지의 눈과 이지(理智)의 가슴을 노출하고
빈고(貧苦)한 섬 백성에게 비장한 설교를 하는
젊은 신들의 후예의 내일을 생각하며
신이여. 유구한 역사의 체시(諦視)
회한을 뚫고 잠들라.

지도(指導)의 운명, 믿고 따름의 기도를 바쳐
거기에도 먼 선조의 말이 있고
동방의 제단에 사랑의 여운은 이어진다.
위대한 것
아름다운 꽃받침이여.
청순하고 충실(忠實)한 고통스러운 청춘이여.
모두 조국에 대한 감사이고, 용사의 엄숙한 교훈이며, 임무를 다하는 한 다발의 산화하는 것이여.
지금은 비애가 명멸하는 시간.
나는 병참의 바다에 출정병(征夫)의 뱃전이 되어
동방의 신들이 잠드는 항만에
축제의 깃발을 펼치고
새로운 공간을 향해
동으로 동으로 의욕과 향수와 생명을 바쳐라

묘비가 소리 높여 울고
물결은 떠들썩하게 미래로 꼬리를 끌고